

석사학위논문

# 초등교육과정 도덕교과 운영 방안 연구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양 방 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고 문 봉

2002년 8월

# 초등교육과정 도덕교과 운영 방안 연구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양 방 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고문봉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2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 초등교육과정 도덕교과 운영 방안 연구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고 문 봉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양 방 주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학교 교육은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능력을 길러주는 것에 못지 않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도덕교육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도덕교육을 통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이 인간과 사회의 도덕적 삶에 필요한 가치규범을 진정으로 깊이 깨달아 내면화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몸으로 구현해 가는 그러한 도덕적 덕성과 인격 특성을 기르도록 하며, 남과 더불어 함께 복된 삶을 살려는 공동체 의식에 더하여 공동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참여하고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자신을 실현해 가는 도덕적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본 연구는 제7차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검토한 후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과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교과를 통한 도덕 교육은 바른 생활과·도덕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의 주된 활동이 교과 교육으로 구성된다든 점을 고려할 때 바른 생활과와 도덕과 교육은 학교 도덕교육의 핵심에 해당된다. 따라서 학교 도덕교육을 제대로 운영하고 기대되는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바른 생활과와 도덕과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은 바른 생활과와 도덕과 교육을 중핵으로 하지만, 교사는 이외에도 여타의 교과 교육 시간을 통하여 도덕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범 교과 학습은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해 도덕과의 주요 가치·덕목과 연계된 영역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발표·토의 활동과 관찰·조사·수집·노작·견학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도덕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도덕적인 행동실천이라고 한다면, 각 교과와 관련된 내용이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과, 재량 활동, 특별활동 전 영역에서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재량활동 시간은 도덕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실천과 활동, 적극적인 참여와 체험 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특별활동을 통하여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을 균형있게 운영하는 가운데 다양한 체험과 실천을 통한 바른 도덕성을 형성시킬 수 있다. 도덕과 지도 시간에 교사 중심의 강의보다는 도덕실 또는 예절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학급을 도덕공동체로 운영하며 교실생활의 분위기와 풍토, 교육적 활동 등을 민주적이고 도덕적으로 운영한다. 학교를 도덕공동체로 만드는 일은 학교를 도덕적 생활 환경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학교의 모든 활동이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풍토 등을 도덕교육에 알맞도록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도덕과를 통한 도덕적 가치 규범에 대한 지도가 학급 및 학교 생활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지도와 연계, 확대되면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통합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본 논문은 200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 목 차

I. 서론	1
II. 학교 도덕과 교육의 이론적 기반	4
1. 학교 도덕교육의 특성과 원리	4
2. 도덕과 교육의 성립과 과제	11
III.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실제	19
1. 제7차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19
2. 실태와 문제점	36
IV. 제7차 교육과정 도덕과의 운영 방안	50
1. 위상의 정립과 인성 교육의 강화	50
2. 타 교과와의 연계 학습	53
3. 체험을 중시하는 교수·학습활동	56
4. 학교의 도덕 공동체화	62
5.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교육 활성화	67
V. 결론	72
참고문헌	77
Summary	79

# I. 서 론

21세기를 지식·정보화 시대, 지식기반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는 지식과 창의력이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사회이며, 국민의 문화적·도덕적 수준의 정도가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직면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인간성의 상실과 가치 혼란, 그리고 도덕적 해이 현상과 도덕 불감증이 만연되는 등 사회의 비 도덕화 현상이 점차 더 심화되어 이대로 가다가는 장차 도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우리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 실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며, 특히 연령이 높아지거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도덕적 태도나 행동이 기대하는 만큼 잘 발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젊은이들로 하여금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민주적이고도 도덕적 생활 양식을 한층 튼튼하게 정착시켜 가기 위한 학교의 도덕 교육적 노력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날 핵가족화 현상과 여성들의 취업, 컴퓨터 이용시간의 증가 등 개인주의적 경향의 증가로 가정의 도덕 교육적 기능이 매우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산업화와 도시화, 빠른 사회변동 등으로 말미암아 지역 공동체는 심리적·공간적으로 거의 해체 상태에 있다. 그리하여 예전에 가정과 지역공동체가 수행했던 도덕 교육적 기능까지도 학교가 맡아,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실행해야 한다는 학교의 도덕 교육적 역할과 책임 증대에 대한 요구가 점차 더 커져 가고 있는 것이다.<sup>1)</sup>

이러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 혼란과 도덕성 상실의 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덕 교육적 대처가 시급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보다 발전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도덕 공동체로서의 한국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인성을 지닌 유덕한 인격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고 강화된 학교 도덕 교육이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도덕은 인간의 본성으로서 도덕성과 사회성으로 인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그 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다.

---

1) 교육부(1998), 「초등 학교 교육 과정 해설 (Ⅲ) : 국어, 도덕, 사회」, p. 178.

도덕의 체득과 실천으로서 도덕교육이란 참된 도덕을 창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성격, 즉 도덕적 성격을 형성하려는 교육이다. 이와 같은 도덕적 성격의 육성을 목표로 해서 그의 발달을 조성하는 것이 도덕교육이므로 그것은 자연상태의 인간을 가치적, 이상적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교육은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체계적, 비체계적으로 행하여진다. 그 중에서도 도덕교육의 중요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점차 체계적 교육이 중시되어 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이다.

그런데 학교 교육은 두 가지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현명한 사람을 기르는 일과 선한 사람을 육성하는 일이 그것이다. 이 중 후자와 관련되는 것이 바로 학교 도덕교육이다. 그런데 교육의 본질이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인간을 길러내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명한 사람에 앞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기르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일이 된다. 이러한 학교의 도덕교육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 도덕교과 교육이다.

도덕과 교육은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도덕성을 형성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성의 지적인 측면에서 요구되는 것은 합리성이며, 행적인 측면에서 요구되는 것은 일관성 혹은 지속성이다. 즉 도덕적 원리나 규칙의 선택과 판단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것의 실천은 일관성 있는 행동이나 태도에 의해서 확인된다. 그러므로 도덕과 교육의 과제는 도덕적 사고와 판단에서 합리성을 높이고, 도덕적 행동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학생을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덕교육의 목적은 도덕성을 갖춘 도덕적인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유덕한 인격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느끼고, 의욕하여 행동에 옮기는 성향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도덕성의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행동적 요소를 모두 함양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이 도덕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도덕과의 종국적 목표는 바람직한 덕의 함양이기 때문이다.<sup>2)</sup>

학교의 도덕교육 중에서 초등학교의 도덕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장차 도덕생활의 근본이 될 기본 생활 습관의 형성과 기본적인 가치관 습득, 도덕적 사고 능력의 배양이라는 면에서, 또한 도덕교과는 비체계적이고 일시적인 경향으로 흐르기 쉬운 초등학교 도덕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

2) 서강식(2000).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발전 방향”, 「도덕윤리과교육」 제12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pp.124~125.

초등학교 도덕과는 초등학교 1, 2학년 바른 생활과 교육이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등 가장 기초적인 생활 규범의 습득을 통해 덕 형성의 출발과 함께 그 밑바탕을 마련하고, 3~6학년에서 도덕과 교육은 바른 생활을 통해 형성된 덕성의 기초 위에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 규범의 보다 깊은 내면화와 자율적인 실천 성향의 형성을 꾀함으로써 유덕한 인격형성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면서 그 심화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학교에서 도덕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우리는 아직도 분명하고도 공유된 그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한 때문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은 초등학교의 도덕과 교육이 효율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바람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도덕과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도덕교과의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장에서는 우선 학교 도덕교육의 이론적 기반에 대해서 도덕적인 인간과 사회를 구현하는 데 공헌하는 도덕교육의 목적, 도덕교육의 특성, 도덕교육의 기본 원리를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도덕과 교육을 고찰한다. 여기에서는 교과로서의 도덕교육 즉 도덕과 교육의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7차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문제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도덕과의 의미, 도덕과의 특성, 도덕과 목표, 도덕과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교과의 내용과 방법의 문제, 학생의 도덕 의식과 행동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도덕과 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가치 기반을 형성하는 거점 교과로서 굳건하게 정착되고 강화되기 위한 교과 위상의 정립과 인성교육 강화 방안, 타 교과와의 연계 학습으로서 모든 교과를 통한 도덕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 체험을 중시하는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과 체험활동을 위한 체험 학습, 재량 활동 시간과 특별 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방안, 교실 생활의 분위기와 풍토, 교수·학습 활동을 민주적이고 도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학급생활과 도덕적 생활 환경으로 만드는 학교를 도덕 공동체화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학교가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도덕과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은 이론적인 분야는 문헌과 선행 연구물들을 토대로 하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제시한 개선방향과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례들을 종합, 정리하는 방법에 의하였다.

본 연구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초등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도덕과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내며 나아가 그 개선 방안을 포함한 도덕교과 전반에 걸친 운영 방안을 총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우선, 제시된 방안이 각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독창적이지 못한 한계점을 갖는다. 이러한 한계점은 제시된 방안이 부분적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도덕과 교육 전반에 걸쳐 다루었다는 점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제시된 방안의 현실성과 효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 Ⅱ. 학교 도덕과 교육의 이론적 기반

### 1. 학교 도덕교육의 특성과 원리

#### 1) 도덕교육의 목적

도덕교육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건전한 도덕적 신념체계를 갖고 인격의 통합을 기하도록 돕는 동시에, 그 개개인이 바람직한 사회를 성립시키는 원리를 공유하고, 또 그것에 기꺼이 따르는 성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덕적인 인간과 사회를 함께 구현하는데 공헌해야 하는 것이다.<sup>3)</sup> 그러므로 도덕교육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통합된 인격을 완성하려고 하는 계획적인 움직임인 것으로 자연상태의 인간을 가치적, 이상적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만의 특정의 시간에 행하여지는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전 영역에 걸쳐서 시행되어야 한다.<sup>4)</sup>

다시 말하면 도덕교육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인간과 사회의 도덕적 삶에 필요한 가치 규범을 진정으로 깊이 깨달아 내면화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몸으로 구현해 가는 그러한 도덕적 덕성과 인격 특성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남과 더불어 함께 복된 삶을 살려는 공동체 의식에 터하여 공동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참여하고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자신을 실현해 가는 도덕적 인간을 기르고자하는 것이다.<sup>5)</sup>

윌슨(J. wilson)은 도덕교육의 목적을 도덕판단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그에 의거하여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두었다.<sup>6)</sup>

이 때 도덕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도덕적인 자율성을 발달시키는 데 있다.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사람은 법이나 관습과 같은 사회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를 구분할 수 있다. 그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스스로 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자

3) 이택휘·유병열(2001), 「도덕교육론」, 양서원, p. 28.

4) 박익중(1994), 「도덕과 교육론」, 형설출판사, pp. 17~18.

5) 이택휘·유병열(2001), 전계서, p. 58

6) 강민석(1999), “도덕과 교육의 정상화 문제”. 「도덕윤리과교육」 제10호, 한국도덕윤리과 교육학회, p. 125.

올적인 인간은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행위하며 규칙에 위배되게 행동했을 때는 죄의식을 느끼거나 서로 상충되는 가치들의 우선 순위를 판단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도덕적인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실제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덕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덕적인 지식의 습득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두 가지로 첫째, 사람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지식, 즉 도덕적 지식을 습득해야만 한다. 둘째, 그는 행위의 정당화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그러나 도덕적 지식을 습득했다고 반드시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지식이 도덕적 행위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감정과 의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려는 마음 자세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도덕적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굳은 결의가 요구된다.

도덕적 지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소유한 사람, 도덕적인 인간은 도덕적인 상황과 비도덕적인 상황을 구별할 수 있고,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그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여 자신이 규정한 규칙에 따라 행위를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의 감정, 욕구, 이익 등도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나 이익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여길 것이며, 자기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보편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덕교육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도덕교육은 바람직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바람직하게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도덕교육은 도덕적 지식에 대한 이해와 지적 안목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도덕적 지식은 내면화되어 행동과 일치되어야 하며 도덕교육의 과정은 학생의 자발성과 기지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보상, 칭찬, 사회적인 비난, 처벌 등과 같은 외적인 동기가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도덕적 지식을 바탕으로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자신의 도덕적인 원리와 지식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한다. 또한 도덕적인 지식을 가지고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어떤 대가나 처벌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도덕적인 행위를 할 것이다.

남궁달화는 “도덕교육이란 교사가 학생들에게 도덕규범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어, 그들이 생활 속에서 도덕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도덕적이 되는가를 도덕규범

을 준거로 사고하고 결정(판단)하여,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그들의 도덕성을 함양시켜 주는 일” 7)이라고 하였다. 즉 도덕교육의 주제는 도덕적 행동이라기보다는 도덕성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덕목을 모두 습득시키거나 덕목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현시키는 일이 아니라, 피교육자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덕목의 의미를 음미하게 하여 그 실현 방법을 탐구하게 한다든지, 덕목의 규범을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스스로 찾아내게 함으로써 올바른 판단력을 갖도록 하여 도덕적 행위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때 도덕교육에서 지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 중에서 어느 것을 강조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적인 면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모르고 한 행동에는 도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또 인지적인 배경이 없는 행동은 자발성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발성이 없는 행동은 더더욱 도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도덕이라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천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듀이는 도덕교육을 학교 안에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으며 지적 수준을 높여 세련된 가치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문제상황을 학교 안에서 체험하고 해결하는 연습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듀이는 학교와 사회를 구분하지 않았고 학교에서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문제해결의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며 교육이 그 자체가 목적일 때는 도덕교육 밖에서 목적을 찾을 수 없으며 학교교육이 도덕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언급한 도덕교육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판단한 것을 실천에 옮기게 하는 도덕적인 감정의 순화와 도덕적인 의지의 습득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돕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도덕적 행동이 도덕교육의 궁극적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실수업을 통해서 직접 다룰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도덕적 행동은 인간의 삶 그 자체이다. 삶은 연습할 수도 실험할 수도 없다. 도덕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 도덕적 행동 또는 ‘있었던’ 도덕적 행동이어야 한다. 그러나 교사는 학생들의 도덕적 행동이 궁극적 목적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도덕교육을 해야 한다.8)

7) 남궁달화(2000), 「도덕교육과 수행평가」, 교육과학사, p. 13.

## 2) 도덕교육의 특성<sup>9)</sup>

도덕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덕교육 담당자들이 우선적으로 도덕교육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도덕교육은 한마디로 농사를 짓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농부들이 정성을 다하여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김을 매주고, 묵묵히 결실을 기다리지만 예기치 않은 자연 재해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처럼, 도덕 교육은 아주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기획(enterprise)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도덕교육을 실시하기만 하면, 아이들이 저절로 바람직한 인간성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지극히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개인만 올바르게 변화시키면 우리 사회가 잘 될 수 있다는 이러한 방법론적 개체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로서의 사회 환경을 무시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도덕교육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방법론적 전체주의(methodological holism) 입장도 함께 견지해 나가야만 한다. 인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구조나 제도, 정책을 바꾸려는 꾸준한 노력이 되지 않는 한,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이 경주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당위의 세계’와 그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오가며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중적 자아를 지닌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가?

도덕교육은 다음과 같은 상반된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를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실행하는 일이야말로 도덕교육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첫째, 도덕 교육은 가장 복잡한 교육적 과제이다. 도덕교육의 목적과 관련된 상당수의 수단들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수의 수단들 때문에 도덕교육은 필연적으로 복잡한 과제이다. “도덕이란 무엇인가? 도덕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도덕교육의 방법은 무엇인가?” 등을 비롯한 수많은 의문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도덕교육은 가장 단순한 교육적 과제이다. 용어들의 복잡함과 방법들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분명하고도 간단

---

8) 상계서, p. 248

9) 추병완(2001), 「도덕 교육의 이해」, 도서출판 백의, pp. 14~16., 전체

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도덕교육에 관한 아무런 배경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도덕교육은 이렇게 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도덕교육은 교육자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교육적 과제이다. 왜냐하면 교사는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요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바와 같이, 사실상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 과정과 더불어 한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 전체가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도덕교육은 교육자들에게 보람을 가져다주는 교육적 과제이다. 왜냐하면 교사가 가르치고 고무시킨 바람직한 도덕적 특성들을 학생들이 사고와 행동으로 보여줄 때 교육자들은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도덕교육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다. 도덕성의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도덕성의 발달은 유기체인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평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계속적이고도 복잡한 과정이다.

여섯째, 도덕교육은 가장 쉬운 교육적 과제이다. 도덕교육에 있어서 가장 용이하고 교육적인 절차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유형의 도덕성의 모습들을 교사가 학생들에게 몸소 시범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범과 귀감으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도덕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도덕교육은 다른 교육들과는 상이한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식이나 기능의 학습에 있어서 교사는 그러한 지식을 알고 있거나 기능을 습득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러나 도덕교육은 이와는 다른 전제를 필요로 한다. 불완전한 도덕성을 지닌 교사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바로 도덕 교육의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한 도덕성을 갖춘 교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도덕성의 소유자에 의해 행하여지는 교육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만 하며, 아마도 이런 귀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교육에 임하는 교사는 자신의 도덕성에서의 불완전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러한 불완전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비판적 성찰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도덕성의 불완전함을 이런 식으로 해결할 때에만, 도덕 교육은 실현 가능한 교육적 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덟째, 도덕교육에는 수면자 효과(sleeper effect)<sup>10)</sup>가 존재한다. 도덕교육에 열의를 지닌 교사들은 도덕교육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매우 초조해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것이다. 도덕교육에는 소위 수면자 효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도덕교육에 대한 교사의 노력이 수년이 지날 때까지 혹은 평생 동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 3) 도덕교육의 기본 원리

도덕교육의 특성 및 교육 과정의 측면에서 본 도덕교육에 대한 네 가지 접근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도덕교육의 기본 원리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sup>11)</sup>

첫째, 도덕교육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기본적인면서도 중핵적인 인격 특성 혹은 덕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 도덕교육은 사람다운 사람 혹은 훌륭한 인격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중요한 표준, 특성, 가치들이 존재한다는 확신감에서 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도덕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특성들을 혹은 덕 가운데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만 한다.

둘째, 도덕교육은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방식 속에서 실행되어야만 한다. 올바른 도덕성을 갖춘 사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표준이나 가치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며,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도덕교육에서는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차원이 통합적인 형태를 이루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규범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활동, 그러한 규범 체계에 일치하려는 열정을 북돋워주는 활동, 구체적인 행동 실천의 기회를 부여하는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조화

10) 수면자 효과의 한 예는 캐나다에서 실시된 설리번(Ed Sullivan)의 연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도덕적 토론 프로그램의 성과를 밝히려는 연구가 캐나다에서 실시된 적이 있었다. 그해 말에 학생들의 도덕적 추론 능력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측정하였는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이 끝났을 때에는 도덕적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하여 높은 도덕적 추론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1년 후에 실시된 추수 평가에서는 실험 집단에 속해 있었던 학생들이 통제 집단에 속해 있었던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발달된 도덕적 추론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계서, P. 16

11) 상계서, p. 19. 요약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도덕교육은 학교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실행되어야만 한다. 교사의 수범, 학교의 교칙, 교과 활동, 클럽 활동, 생활 지도, 학교 환경 관리, 학교행사, 학급회의, 학부모 및 지역 사회와의 관계 등 학교 생활의 모든 측면들을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을 위한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넷째, 학급 혹은 학교는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응집력 있는 도덕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학급 혹은 학교 자체가 올바른 도덕성을 구비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실이나 학교는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올바른 도덕성은 관계를 통하여 학습되고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교육이 공동체적 삶의 형태로서의 학급 혹은 학교의 역할을 등한시할 때, 도덕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급 혹은 학교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갈등을 민주적·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가운데 도덕성의 함양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응집력 있는 공동체가 될 때, 도덕 교육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다섯째,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격 특성을 행동으로 옮겨볼 수 있는 다양한 실천 기회들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은 정의로운 행동을 해 봄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해 봄으로써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도덕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행동’ 혹은 ‘실천’에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올바른 도덕성 함양을 위하여 일상적인 상호 작용과 논의 속에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표준이나 가치들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 기회는 구체적인 행동 및 연습의 기회, 사고 및 성찰의 기회, 제작 및 감상의 기회, 발표 및 토론의 기회 등 다채롭게 구성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자율성과 흥미, 개인차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여섯째, 도덕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확고한 소신과 열정에 달려 있다.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도덕교육에서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도덕교육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학교들에는 예외 없이 확고한 신념과 열정을 지닌 학교장과 교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도덕 교육 담당자들은 진실성, 존중, 감정이입, 배려, 건설적 비판들을 몸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 기회들을 부여하고, 그러한 활동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

중해 주며, 학생들을 지니고 있는 최상의 동기들을 확인 및 확증(confirmation)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도덕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부모 및 지역 사회를 도덕교육의 협력자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 학부모, 지역 사회 사이에 학생의 학습 및 발달에 관한 공유된 목적과 사명이 결여되어 있는 곳에서는 도덕교육의 협력자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 학부모, 지역 사회 사이에 학생의 학습 및 발달에 관한 공유된 목적과 사명이 결여되어 있는 곳에서는 도덕 교육이 결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학교는 가정 및 지역 사회를 학교의 다양한 도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가정 및 지역 사회를 학교의 도덕교육을 위한 자료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의 도덕교육 내용을 확대·지원·보강해 줄 수 있는 가정에서의 도덕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학부모들에게 보급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학교 행사들에 학부모 및 지역 사회를 관여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에 해로움을 주는 지역 사회의 교육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려는 실질적인 노력도 경주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와 가정, 학교와 지역 사회 사이에 열린 양 방향적 의사 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sup>12)</sup>

도덕교육은 교육적 구호나 일회적인 방법의 적용으로 끝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또한, 도덕교육은 도덕교과의 수업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도덕과를 굴대로 하는 가운데 학교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도덕교육이 지속적·반복적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모든 교과, 모든 교사가 도덕 교육의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학부모 및 지역 사회를 학교에서의 도덕 교육을 위한 유능한 협력자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균형 있는 도덕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덕성의 ‘뿌리’와 ‘날개’를 동시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복잡적이듯이, 도덕 교육은 매우 복잡적·포괄적·통합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두 가지 위대한 목적은 지적으로 총명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새로운 세대를 육성하는 데 있다. 그러기에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는 “한 인간을 도덕이 아닌 머리

12) 추병완(1998), “미국의 인격 교육”, 「세계의 윤리·도덕교육」,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로만 교육하는 것은 사회에 대해 하나의 위험인물을 교육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 동안 우리의 교육은 이 두 가지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이 사실이다. 단편적이고 기계적인 암기력을 갖춘 사람을 만들어 냈을 뿐, 문제 해결력·비판적 사고력·창의력 등의 고등 사고 기능을 지닌 사람을 기러내는데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실행되었던 올바른 인성의 함양 혹은 도덕성 발달을 위한 교육은 언어적이고 추상적인 훈계와 설득 차원에만 치우쳐 실생활과 실천으로부터 유리된 그야말로 반쪽의 도덕 교육에 불과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도덕교육의 특성과 기본 원리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에 부합되는 실천적인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속적인 실천이다.<sup>13)</sup>

## 2. 도덕과 교육의 성립과 과제

### 1) 교과로서의 도덕교육

도덕교육의 성격을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도덕성을 형성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파악할 때 이것은 가정이나 사회 및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덕교육은 전통적으로 학교교육의 목표와 내용 속에 포함되어 왔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학교가 처한 이념적·현실적 요구에 의해서 도덕교육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하나의 독립된 교과가 생겨나게 되었다.

도덕과 성립의 현실적 근거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복잡성과 변화의 가속성에 따르는 교육적 조치가 요청된다는데 있다. 현대사회의 상황에서 자주적 가치판단의 능력과 주체적 가치결정을 행사하면서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고 원숙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이며 따라서 별개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인 도덕과 교육이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현대의 학문발달이 학교교육의 양상을 지식의 양적 증가에 따라 각 교과에서 그 교육의 방법을 중시하게 만들었으므로 도덕적 가치판단의 능력이나 태도에 관한 일은 모든 교과로부터 밀려나게 되었으며 따라서 도덕성에 관련된 지식의 증대와 가치탐구의 방법론적 특수성은 별개의 교과로 도덕과 교육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13) 추병완(2001), 전계서, pp. 22~23.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하여 도덕과 교육의 의의를 살펴보면 교과통합적 기능과 가치통합적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도덕교과는 여러 교과를 통하여 획득된 지식과 능력과 태도를 통합하여 자신의 인격 형성에 의미 있게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다음으로 도덕과 교육은 가정·학교·사회의 생활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획득한 여러 규범들의 상호 관련성이나 모호성을 파악하여 하나의 통합된 가치체계를 가진 인격을 형성하도록 돕는 일이다. 이러한 기능과 관련하여 교과로서의 도덕교육의 형태를 살펴보면 도덕수업의 실태는 여러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규범의 내면화, 규범의 근거에 대한 이해와 심화, 가치개념의 명료화, 가치갈등의 해결, 실천동기의 강화 및 정서순화 등이다.

규범의 내면화를 위한 수업은 새로운 규범이나 덕목을 도입하고 소개하는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수업에서 교사는 우선 가르치고자 하는 규범을 일상적인 문제사태로 제시하고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규범의 근거와 이유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수업을 이미 알고, 지키고 있는 규범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검토하기 위한 것임에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정당화가 있다. 사실적 정당화는 어떤 규범을 실제 생활에서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든지 생각해 하는 방법으로 초등학교 중급학년 이상이면 학습할 수 있다. 논리적 정당화는 개념적 사고력이 비교적 성숙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에 적절한 방법이다.

가치개념의 명료화를 위한 수업은 모든 교과의 수업에서 중요하나 특히 도덕적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도덕적 언어의 기능을 바로 파악하는데서 시작된다고 할 때 도덕과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은 일상언어 분석의 방식을 통해 가능하다.

가치갈등의 해결을 위한 수업형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사태가 여러 가지 가치들의 갈등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의 해결을 위한 수업으로서 우리들이 내면화한 규범들이 적용되는 실제적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초등학교 6학년 이상에 적용할 수 있다. 실천동기의 강화를 위한 수업은 행적 도덕성에 관한 한, 학교의 도덕교육이 갖는 한계성에 비추어 볼 때 행동화를 취할 수 있는 소박한 방안이다.

위에서 제외된 도덕교육의 수업 형태들은 단위 수업 시간에 어느 하나만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각각에서 제외된 모든 단계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각각의 수업 목표가 위의 어느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최소한의 유의 사항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

이다.<sup>14)</sup>

## 2) 도덕과 교육의 과제

도덕과 교육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확고하게 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왜 도덕교육을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별도의 독립된 교과인 도덕과를 설정하여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그리고 도덕교육을 하나의 교과교육의 형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sup>15)</sup>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교육이 새로운 세대구성원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안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도덕교육이 일시적인 유행, 대중적인 인기나 인식과는 관계없이 교육의 중심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정직성, 진실성, 공정한 대우, 인간의 존엄성, 타인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도덕적 가치들이 모든 유형의 사회집단 내에서 배제되거나 무시될 수 있다고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교육이 학교교육의 중요한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속에서 그 역할이 계속적으로 증대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덕교육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많은 의견을 보여왔다.

허스트(H. P. Hirst)는 도덕교육을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비록 잠재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도덕판단능력을 길러주는 도덕교육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것을 학교의 일상적인 영향력 하에 남겨둘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도덕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도덕규칙에 대한 인식 및 도덕적 개념의 이해, 추론방식의 이해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이 도덕적 지식을 획득하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덕적 담화의 논리를 숙달하도록 하며 그리고 기본적 도덕원리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에 의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역사, 문학, 종교 등에 관하여 배우는 동안에 도덕

---

14) 박용현 외(1986), 「도덕과 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pp. 1~9. 요약

15) 강민석(1999), 전계서, pp. 124~144. 요약

적으로 중요한 어떤 것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충분히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역사, 문학, 종교 등이 도덕교육활동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여도 실제로 그러한 영역들은 도덕교육활동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1) 도덕교육과 도덕과 교육 목표의 차별화

도덕과 교육활동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보편적인 시각의 도덕교육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덕교육활동과는 다른 시각에 토대를 두어야 할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도덕과 교육이 우리사회의 정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설정되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교육으로서 그것이 존재근거와 관련된 교육활동, 즉 학교교육을 구성하는 독자적인 하위영역으로서의 도덕교육활동에 관심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도덕과 교육이 학교교육과정 속에 편성되어 운영되는데 한 축을 형성한 정치 사회적 요구라는 측면도 모든 교과교육과 마찬가지로 도덕과 교육의 설정근거를 정당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도덕과 교육은 대체로 정치 사회적 요구충족만을 교과교육활동의 정당한 근거로서 제시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교과교육활동의 초점도 여기에 맞추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공동선을 확인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구현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기능들 중의 하나라고 볼 때, 정치 사회적 요구 충족이라는 조건은 교과교육설정의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도덕과 교육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정치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안녕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인을 위한 도덕교육이라는 전제와 더불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도덕교육일반의 접근방식과는 달리 교육과정의 다른 영역이나 일상생활사태 등에서는 수행되기 어려운 이상화된 형태의 도덕교육활동을 도덕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 (2) 도덕교육과 도덕과 교육의 역할분담

도덕과 교육은 도덕적 행위와 관련된 도덕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더불어 직접적으로 도덕적 행위지도에 관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궁극적으로 도덕적 지식에 의거하여 도덕적 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의지 및 성향까지만 관여하는 교과교육으로서 그 영역이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히 학생들에게 도덕적 지식을 전달해 주고 그에 따른 실천의지

및 행동성향을 길러 주는 것은 그들에게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도덕적 실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만으로서도 다른 교과교육과 마찬가지로 도덕과 교육의 설정근거나 이유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면 도덕과 교육이 하나의 교과교육으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덕적 지식이 도덕과 교육활동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는가? J. P. 화이트가 언급한 바와 같이, 최소한 특정한 영역을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독립된 교과로 설정하여 가르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사태나 다른 교과영역을 통해서는 다루어 질 수 없는 영역이나 다른 교과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는 영역이 존재해야 한다. 즉, 도덕과 교육은 일상생활사태 속에서나 다른 교과나 범교과적인 활동을 통해서는 다루어질 수 없는 도덕적 지식을 궁극적인 교과교육활동의 내용으로서 설정해야 할 것이다. 특정한 교과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교과교육의 내용, 방법, 평가 등과 같은 영역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것은 교과교육 그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도덕과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으로서 도덕적 지식은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도덕교육은 다른 기존의 교과교육과는 달리 그것이 전통적으로 다루어 오던 지식체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윤리학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의 내용을 구성하게 되면 도덕적 사고나 판단의 기본적인 원리에 접할 수는 있도록 하겠지만 구체적인 삶의 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과는 항상 거리가 있을 것이며 또한 도덕적 정조나 태도를 길러주고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의 습관을 형성하는데 한계를 보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도덕규범이나 규칙 등을 중심으로 조직하게 되면 다른 교과처럼 학문적 체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도덕과 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도덕적 지식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난점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덕과 교육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그것은 일상생활사태나 학교생활사태 속에서 체계적인 교육활동이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도덕과 교육은 삶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의 해결에 작용하는 사고능력과 판단의 원리를 학습하는 것에 궁극적인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도덕과 교육에의 접근 방식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대체로 핵심적인 도덕교육활동의 내용으로서 도덕판단능력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도덕교육활동 속에서 도덕판단능력은 공동체의 규범이나 도덕적 이상에 대한 내면화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그들에게 전달해야 할 도덕적 지식은 기본 생활습관, 공중도덕, 예절생활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들에게 건전한 도덕성의 기초를 다지게 하고 사회적으로 구성원들의 도덕적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덕적 지식은 개관적 판단기준에 의하여 진위를 분별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도덕과 교육의 내용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한 도덕적 지식은 도덕판단능력과 관련된 지식이다. 그러나 도덕적 문제사태 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가 될 수 있는 도덕규범과 규칙에 대한 인식 및 내면화, 도덕적 결정 및 행동과 관계가 있는 사실적 지식의 인식, 올바르게 합리적인 도덕판단을 위하여 자신과 타인의 감정 및 정서에 대한 인식, 사회적 기능 훈련 등과 관련된 지식도 도덕과 교육활동 속에서 도덕과 내용으로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은 한국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안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지식과 그것에 관련된 이론적 근거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부여하는 교과교육으로서 그 성격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 (3) 도덕과 교육의 내용과 활동의 도덕적 정당화.

모든 사회체제 하에서 이루어져 왔던 모든 유형의 도덕교육활동은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런데 모든 사회체제가 직면한 문제들은 정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도 다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도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순수 개인적 윤리 학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도덕교육활동만을 도덕교육의 본질로서 간주하는 편견이나 오류를 우리는 시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개인적 도덕성의 함양을 통하여 사회체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접근법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덕교육활동의 도덕성문제는 특정한 공동체라는 유기체의

생존논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시각에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시기의 정치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논의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4)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요구<sup>16)</sup>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에 대한 도전과 요구들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그 동안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요구를 규정하는 세 가지 입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① 윤리학적 지식과 관점의 교육

첫 번째 입장은 도덕과의 모학문인 윤리학에 의해 도덕과 교육의 내용과 성격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교과 교육의 내용과 성격은 그 교과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모학문(母學問)에 의해 규정된다. 수학과가 수학이라는 학문에 의해, 과학과가 과학이라는 학문에 의해 그 내용과 성격이 규정되듯이, 도덕과는 모학문인 윤리학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된다. 곧 도덕 교과는 윤리학에서 축적된 지식과 사고 방식을 가르치고, 그 결과로 학생들은 윤리학적인 관점과 안목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는 입장이 그것이다. 이처럼 모학문인 윤리학에 의해 도덕 교과의 성격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사조가 강하게 영향을 미쳤던 제3차 교육과정기에 특히 강조되었던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도덕 교과의 성격은 분명하다. 인류의 문화적 성취의 한 영역인 윤리학(관련된 정보, 지식, 사고 방식 등)의 학문적 성과를 정선하고, 구조화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게 재조직하여 제시하고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학생들은 인간과 세상사를 '윤리학적인 안목'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윤리학적 성과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교과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는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예를 들어, 메타 윤리학의 논의들이 과연 초등학생들에게 알맞은 교육 내용일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초등학교 도덕과의 내용과 성격은 이러한 입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윤리학의 관점이라면, 도덕 생활을 실제로 영위하는 것보다 도덕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초등학교 도덕과의 내용과 성격에는 도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

16) 조난심(2000),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발전 방향”, 「도덕윤리과교육」 제12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pp. 111~113. 전제

두고 있다. 이 두 가지 활동은 다른 것이다. 예컨대, ‘정직’이 무엇인지 따지고 정직의 윤리학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과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서로 다른 종류의 일이다. 세계 최고의 윤리학자가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에서 윤리학적 관점을 형성하게 한다는 입장은 크게 설득력을 얻고 있지는 못하다.

## ② 도덕적 판단력의 형성

두 번째 입장은 현대 도덕교육에서 가장 낮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입장에서는 다양한 도덕적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시대(현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덕 교과에서 해주어야 하고 또 해줄 수 있는 일은 바로 도덕적 가치의 선택과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라고 한다. 이 입장은 듀이(J.Dewey)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듀이를 위시한 20세기 초반의 진보주의자들은 현대 과학 문명의 눈부신 발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자연과학과 기술의 세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및 도덕 윤리의 문제도 이 영역에서 눈부시게 발달된 실험적인 방법들을 적용한다면, 종래의 인격 교육에서 찾을 수 없었던 새로운 도덕과 사회의 진보를 이룩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이들은 이미 정해진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를 맹목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도덕 교육의 입장을 급변하는 새로운 사회에서 요구하는 윤리 도덕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도덕 교육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도덕적 상대주의와 자유주의 철학 사조에 영향을 받은 도덕교육학자들은, 학생들에게 기존의 도덕적 가치를 주입하는 것은 ‘교화(indoctrination)’로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도덕적 가치를 주입하지 않으면서, 사회에서 부딪치는 도덕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여러 가치들 중에서 선택하는 일, 갈등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일-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도덕교육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았다.

이들을 대표하는 입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치명료화(value clarification)와 콜버그식의 도덕교육론이다. 래스(L.E.Raths)들이 개발한 가치명료화 모형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가치의 ‘내용’이 아니라 가치화의 과정(valuing process)이 적절한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도덕 교육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가치화의 과정을 통해 가치 선택을 연습시킴으로써 학생 스스로 확고한 가치를 내면화하게 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콜버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도덕성 발달의 계열이 있다고 보았고 도덕 교육의 목적은 바로 이 발달을 더 촉진시켜 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도덕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종래의 도덕 교육에서처럼 학생들에게 ‘한 보따리의 덕(bag of virtues)’을 안겨 주어서는 안되고,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하고 이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검토하게 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이제 학생들은 도덕 교육에서 구체적인 덕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의 상황에서 결정하는 연습을 해보고, 도덕적 딜레마에서 나름대로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덕 교육의 접근은 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였다.

도덕적 자율성의 형성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자율론적 접근’은 우리 초등학교의 도덕과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제4차 교육과정기 이후 도덕과 교육에서 추구해 온 ‘인지적 접근’이란 바로 우리의 도덕과 교육에 이러한 새로운 접근을 접목시켜 보려는 노력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도덕과 교육의 새로운 방법들을 우리의 도덕과 수업에 도입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도덕과 교육 이론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그러나, 최근에 덕목의 윤리가 부활하고, 전통적인 덕목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자율론적 접근 자체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도덕과에서는 학생들이 가치를 선택하고, 도덕적 판단을 해보기 전에 핵심적인 도덕적 덕목과 가치들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인성 교육이 부각되면서, 이전의 자율론적 접근 자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이러한 입장에서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에서 요구되는 관점들은 약화되고 있다.

### ③ 도덕적 덕목의 내면화

세 번째 입장은,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또 가장 현대적인 도덕 교육론을 반영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도덕과 교육은 학생들을 도덕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 필요한 덕목을 내면화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정직, 존중, 책임, 공정 등과 같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덕목과 가치가 있다고 믿고, 도덕과 교육에서는 이러한 덕목을 학생들이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입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인 도덕교육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은 바로 이러한 덕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어떤 덕목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덕목의 실질적인 의미와 중요성은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란 사회, 집단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므로 학교 도덕과 교육에서 어떤 덕목을 선정하여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는 핵심적인 주제이다. 동질성이 높은 사회이고, 집단의 가치 갈등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나, 이질성이 높고, 가치 갈등의 폭이 넓은 사회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기 어렵다.

둘째, 덕목을 내면화시켜 도덕적 인격을 갖추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유덕(有德)한 인격을 갖추게 되는 길은 유덕한 인격을 갖춘 인물을 따라 배우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용기’라는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기 있는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덕목은 도덕적 행동을 실천해 봄으로써 배운다. 이러한 방법은 덕목 교육에서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도덕과 교육-일정한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가지고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의 틀-에서는 적용하기 곤란한 방법이라는 점이다. 실제 인물을 모방하는 것이나 행동을 실천하는 방법은 특별히 마련된 교과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일상 생활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적 난점 때문에, 도덕 교과에서 덕목 교육을 시도하다보면, 자칫 덕목주의 곧 덕목에 관해서 말로 일러주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최근에 ‘실천 위주의 인성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도덕과에서 이루어지는 덕목 교육의 이러한 한계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초등학교 도덕과의 성격 중 그 어느 것도 앞으로의 학교 도덕 교육에 대한 요구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향후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도덕과 교육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요구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Ⅲ.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실제

#### 1. 제7차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sup>17)</sup>

##### 1) 도덕과의 의의

현행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하에서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덕과 교육과목은 ‘바른생활과’와 ‘도덕과’이다. 이 바른생활과·도덕과 교육이란 국가에서 제정·공포한 공식적 교육 과정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도덕 수업이라는 교사와 아동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의도적·계획적으로 실시되는 도덕교육을 말한다.

바른 생활과는 1992년 9월 30일 공포된 제6차 교육과정기에 들어와 종래의 통합 교과에서 분리, 독립된 교과로서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바른 생활과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1~2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본생활습관과 예절 및 규범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형성하여 건전한 인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교과이다. 이 바른 생활과는 그 다음 단계에서 지도되는 도덕과의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도록 교육과정상의 목표와 내용, 지도 방법 면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도덕과는 1973년 제3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정식 교과로 신설된 것으로 현재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가르쳐지고 있다. 도덕과는 1~2학년의 바른 생활과에서 배운 기본 생활습관과 예절 및 기본적인 도덕규범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단계의 자율적 도덕성 형성의 기초를 다지게 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적 자질을 기르게 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바른 생활과와 도덕과 교육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

17)이하의 내용은 교육부(1997),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 \_\_\_\_\_(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해설(Ⅲ)」, \_\_\_\_\_(2000~2001),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바른생활, 도덕)의 내용을 요약하여 전제함.

첫째, 도덕과 교육이 공식적 교육과정에 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통한 도덕교육이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그리고 적어도 국민이 이러한 도덕교육을 원하고 국가가 이를 적극 실시하고자 의도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나라의 초등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면 누구나 이를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교육적 권리·의무가 주어지는 그러한 교육 활동으로서의 의의를 갖는 것이다.

동시에 공식적 교육과정에 근거한 도덕과 교육은 최소한의 중핵적인 도덕교육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이런 뜻에서 학교 도덕교육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건전한 도덕성과 인격의 기초를 형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측면의 도덕적 능력과 자질을 습득시켜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최소한 바른생활과·도덕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만큼은 반드시 가르쳐서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도덕교육이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의도와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최소한 바른생활과와 도덕과를 통한 도덕교육은 이 모든 도덕교육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중핵적인 도덕교육으로서 반드시 가르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도덕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둘째, 도덕과 교육은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덕교육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이는 바른생활과와 도덕과를 통한 도덕교육이 어떤 모습의 도덕적 인간의 육성을 지향하는지, 어떤 도덕적 능력과 자질, 성향을 형성시키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정해놓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일련의 계획적인 노력을 체계적으로 경주하게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바른 생활과는 저학년의 도덕성 발달 특성과 사회의 도덕적 요구를 감안하여,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도덕규범을 알게 하고 습관화시킴으로써 건전한 도덕성의 기초를 형성하게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도덕과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덕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도덕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고력과 가치판단 능력을 신장시키며,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생활태도로 자율적인 도덕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른 생활과와 도덕과에서는 개인생활 영역, 가정·이웃생활 영역, 학교생활 영역, 사회생활 영역, 그리고 국가생활 영역에 걸쳐 자주, 근면, 성실, 절제, 예절, 책임, 효도 경애, 협동, 공공 질서, 공정, 공익, 국가애, 민족애 등 여러 가지의 가치의 가치·덕목 내지 주요 지도요소를 설정해 놓고 관련내용을 선정, 지도

하게 하고 있다.

도덕과 교육의 이러한 목표설정과 내용 선정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 특성과 우리 사회의 도덕적 현실 및 미래지향적 요구에 기초하여, 학문적·이론적 근거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설정하고 선정·조직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의도적·계획적인 도덕교육으로서의 도덕과 교육에 그 정당성의 기반이 제공되는 것이다.

셋째, 도덕교육은 도덕 수업이라는 교사-학생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도덕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도덕 수업은 도덕적인 내용의 교수-학습을 중심으로 하여 전문적인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적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바른 생활과와 도덕과 교육은 과외 교사나 학부모,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사람에 의해 어떤 계기를 통해 도덕이 가르쳐지는 것과 분명히 구별된다. 또 그것이 도덕성의 형성과 발달을 지향하는 공식적 수업 과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무계획적·자연적·비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생활지도 차원의 도덕 교육이나 타 교과를 통한 도덕교육과 구별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덕과 교육의 특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그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도덕적 삶의 능력과 성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도적·조직적·계획적인 교수-학습활동을 중심으로 도덕 학습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교육과정상의 교과 목표에 설정되고, 구체적인 지도 내용이 선정·조직되며, 적절한 지도 방법을 적용하여 수업을 전개하고, 수업을 한 후에는 그 교육된 결과가 평가되어 다시 피드백 되는 일련의 역동적 과정을 통해 전개된다는 점이다.

넷째, 도덕과 교육은 인간 도덕성 발달의 심리학적 통찰과 원리에 입각하여, 그리고 의도적·계획적·체계적인 도덕적 교수-학습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도 자율적인 도덕성의 기초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교육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도덕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다양하다. 흔히 쓰이는 방법은 이르기까지 행동 양식 내지 규칙을 제시한 후 그것을 잘 실천하도록 칭찬 또는 보상을 주어 독려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계속 제지시키면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를 반복 실천하게 하여 습관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대부분의 도덕적인 행동 그리고 성인들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도덕 학습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 형성된 도덕성은 불안하고 불완전하며 타율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불안하고 불완전한 이유는 그러한 외적 보상이나 압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자칫 습득된 도덕생활 능력이나 성향이 사라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또 그것이 맹목적, 타율적인 이유는 도덕을 따르는 근원이 그의 내면적 각성과 자기 판단에 의한 행동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바른생활과와 도덕과 교육이 반성적·합리적 도덕성의 기초 형성을 지향한다는 점은 바로 이러한 불안하고 불완전한 도덕성 형성과는 다른 접근을 취한다는 데 있다. 즉 그것은 도덕적 가치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반성적 숙고와 합리적 판단을 통해 내면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급적 자발적인 도덕적 실천성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기초'를 놓는다는 말은 이러한 반성적·합리적 도덕성이 인간의 성장 과정을 따라 오랜 세월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생들의 인지적·도덕적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그 토대를 든든히 구축하고자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나아가 바른생활과와 도덕과를 통한 도덕교육은 대체로 도덕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깊은 내면화 및 그러한 이해에 근거한 도덕적 사고·판단능력의 육성, 그리고 높은 도덕적 실천 동기와 구체적인 도덕적 행동 양식의 습득 등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렇게 하여 바른생활과·도덕과를 통해 이루어진 도덕교육은 의도적·계획적·체계적으로 교수·학습과정을 통해 도덕적 이성과 도덕적 실천 및 습관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반성적이고 합리적인 도덕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도덕과 교육은 교과 통합과 가치 통합이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sup>18)</sup> 교과 통합이란 여러 교과에서 배운 도덕적 지식과 사고 능력 및 태도를 통합하여 인격 형성에 의미 있게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자연보호에 관해 국어과 시간과 사회과 시간 그리고 음악과 시간에 다루었다. 하더라도 각 교과에서 배운 자연보호에 관한 모종의 학습들이 체계화되지 못한 채 산만하게 비조직적으로 학생들의 뇌리 속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일과 관련하여 도덕과 시간에 여러 교과에서 얻은 지식과 태도, 능력을 통합하여 자연보호라는 도덕적 가치규범을 중심으로 사실적·규범적 이해와 가치의 내면화를 도모하고, 자연보호와 관련된 판단 능력을 높이는 한편, 자연보호에 힘쓰고자 하는 실천의지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

18) 이돈희(1995), 「도덕교육원론」, 교육과학사, pp. 274~276.

한편, 가치 통합이란 학생들이 여러 생활 장면에서 다양하고도 산만하게 획득한 가치들 사이의 상호관련성과 모순성을 분별하여 유기적으로 통합된 가치 체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학생들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여러 생활 장면에서 여러 가지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배울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가치들이 산만하게 제 각각으로 학생들의 내면 속에 자리잡게 된다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생들의 사고와 판단, 행동은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때로는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도덕과의 가치 통합이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기제가 된다. 즉, 학생들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통해 획득한 여러 가지 가치 규범을 어떤 도덕 원리를 중심으로 통합된 가치 체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도덕과 교육은 바로 이러한 교과 통합과 가치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여타 형태의 도덕 교육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성과 공통점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sup>19)</sup>

## 2) 도덕과의 특성

초등학교 도덕과는 그 설정 배경과 성격, 기능면에서 다른 교과들과는 또 다른 특성이 있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도덕과 설정의 배경

#### ① 이념적 배경

한 사회가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치 체계를 내면화시켜 공동체적인 삶의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만 한다. 이는 공교육 체제 전반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공교육 기관인 학교는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자라나는 세대에게 전수시키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도덕과 교육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통의 이상과 가치를 명시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수시키는 일을 담당한다.

물론, 공교육에서 추구하는 사회의 이상과 목표는 도덕과 교육에서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모든 교과를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여, 모든 교과 교육, 그리고 어떤 형태의 교육이든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이상적인 인간상과 사회의 이념이 기본적인 대전제로 주어져 있다. 어떤 인간으로 길러져야 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회가 건

19) 이택휘·유병열(2001), 전거서, pp. 363~364.

설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있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교육이 행하여진다면, 교육의 목표 속에도 그것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사회 생활과 국가 생활을 지배하는 이념과 가치 및 도덕적 원리가 모든 교육적 활동에 대전제로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명시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한 사회의 공동체적 삶은 구성원들간의 공통적인 이념적 가치 기반의 형성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덕과 설정의 이념적 배경은 바로 이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곧, 도덕과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간의 공통적인 가치 기반을 형성해 나가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교과라고 할 수 있다.

## ② 현실적 배경

현대 사회를 일컬어 흔히 가치 혼란의 시대라고도 한다. 그것은 현대 사회의 구조적 복잡성과 고도의 가변성에 기인한다. 특히, 우리 사회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역사적 전통의 일시적 단절, 그리고 서구 문화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하여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또,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상의 급격한 변모와 생활 양식의 변화는 이 속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가치 기준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

극심한 인구 이동과 도시 집중 경향으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인간의 정적 유대가 약화되고, 생산 체제의 기계화와 조직 사회로서의 경직성, 그리고 대중 사회의 비인격성은 인간 소외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또, 사회 구조의 복잡성은 다양한 가치관을 낳고 있으므로, 사회 집단 간의 통합을 기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가족 기능의 약화와 사회의 기능적 전문성의 분화는 인격의 해체를 가져올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딪히는 가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 활동에서 체계적인 도덕교육을 목적으로 독립된 교과로서의 도덕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며 중요한 일이다. 도덕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과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여, 자율적 가치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 주체적 가치 결정을 행하면서 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은 매우 긴요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 나라는 가치관의 주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와 정치 이데올로기가 통일되어 있지 못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 나라는 하나의 지배적인 종교 없이 몇 가지 주된 종교 집단이 공존해야 하는 다종교 사회이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하여 분단의 비극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이 확고한 가치관에 기초한 인격을 형



성할 수 있도록 돕는 도덕과 교육이 더욱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 ③ 학문적 배경

오늘날 학문은 방법론의 발달과 더불어 극히 세분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교 교과 교육의 양상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지식의 양적 증가가 가속되어 왔기 때문에, 증가된 지식 모두를 학교에서 지도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 교육은 지식의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즉, 학교는 지식의 구조적 특징과 방법론적 원리를 주된 관심사로 하고 지식 교육에 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기존에 교과를 이루고 있던 잡다한 주변적인 요소들을 버리고 그 교과 특유의 방법론을 중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근대 이후 자연 과학을 범형으로 삼는 객관주의적 지식관은 일반 지식 교과에서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꺼리게 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으로 말미암아 도덕 교육은 종래와 같이 여러 교과 활동 속에 포함될 수 없게 되었다. 과학적 지식의 탐구는 이론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치 판단의 개념을 배격하고자 하며, 논리적 및 수학적 지식의 탐구는 엄격한 사고를 방해하는 정서와 감정의 개입을 금기로 여긴다. 그리고 가치와 관련된 교과라고 할 수 있는 예능 교과는 주로 심미적 가치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의 문제에 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도덕적 가치 판단의 능력이나 태도에 관한 일은 실질적으로 모든 교과로부터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덕성에 관련된 지식의 증대와 가치 탐구의 방법론적 특수성은 별개 교과로서의 도덕과 교육을 요청하고 있다.

## (2) 도덕과 교육의 성격

### ① 도덕과 교육의 과제

도덕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해하고,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국가, 민족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파악하게 하여 한 국민,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이다. 도덕과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실천해야 할 보편적이며 이상적인 가치들과,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생활의 기준이 되는 도덕 규범과 가치들을 내면화시켜 올바른 행동 습관을 기르는 동시에,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 능력을 길러 주는데 역점을 둔다.

이와 같은 도덕과 교육의 과제는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도덕성을 함양하도록 돕는 것

이다. 건전한 도덕성이란 도덕성의 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이 통합적으로 잘 발달한 바람직한 도덕적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첫째, 도덕성의 지적 측면이란, 도덕적 규칙이나 원리 또는 규범의 합리성을 판단하고 선택하며, 그것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이나 타인의 행동을 평가하는 능력을 일컫는 말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의미의 도덕성은 ‘선악 판단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도덕성의 인지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다.

둘째, 도덕성의 정의적 측면이란, 도덕적 민감성, 공감 능력, 분노, 조절, 배려 등을 말한다. 도덕적 정서의 발달을 통해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발달시키고, 도덕적 행동을 좋아하며, 비도덕적인 행동을 혐오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이러한 도덕성의 정의적 측면은 종래의 도덕교육에서는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으로서, 제7차 초등학교 교육 과정의 ‘도덕’ 교과에서 강화시키고자 하는 도덕성의 측면이다.

셋째, 도덕성의 행동적 측면이란, 도덕적 규칙이나 원리를 내면화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태도나 성향을 가지고 습관화시킨 상태를 일컫는 말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는 도덕성의 행동적이며 실천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다.

도덕성의 이 세 가지 측면은, 별개의 실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같은 것을 다른 측면에서 본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도덕과 교육의 과제는 학생으로 하여금 도덕성의 이 세 측면을 잘 발달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곧, 학생들이 보다 넓고 깊이 있는 도덕적 인격을 형성해 나가고, 이와 일관되게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의 전반적인 도덕적 삶이 향상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도덕과 교육의 과제이다.

## ② 도덕과 교육의 내용적 특성

도덕과 교육의 내용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과에서는 도덕적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내용을 다룬다. 도덕적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사물이나 사태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능력, 또는 개념의 의미, 개념들 간의 논리적 관계의 인식만으로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능력이다. 어떤 사태에서 그와 관련된 사실이나 지식을 충분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사태에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에 따라 실천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질 때에 비로소 적절한 도덕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도덕과의 내용은 자연 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사실적 지식도 아니고, 수학 등에서 다루는 논리적 지식이나 미술이나 음악 등에서 다루는 심미적 내용도 아니다, 도덕과의 내용은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며, 또 그것을 정당화하는 데 요구되는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것이다. 비록, 도덕과에서 사실적 지식이나 논리적 지식 등을 다루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할 뿐이고, 도덕과의 중심적인 내용은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둘째, 도덕과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여기서 ‘일상 생활’이란, 학생들의 전 생활 영역, 곧 개인으로서의 생활, 가정·이웃·학교와 같은 근린(近隣)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생활, 보다 넓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생활 및 한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생활을 의미한다. 도덕과에서는 학생들이 이 같은 일상 생활의 제 영역에서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요구되는 덕과 규범들을 다룬다.

그런데 이 같은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 요구되는 규범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도덕적 원리들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규범이다. 그러한 규범들 중에는 서구의 민주주의적 가치에 뿌리를 둔 것도 있고, 외래 종교에 뿌리를 둔 것도 있으나, 주된 규범들은 오늘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도덕·윤리적 문화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요컨대, 도덕과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은 우리의 전통에 뿌리를 둔 것이며,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방향 짓는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는 규범들인 것이다.

### ③ 도덕과 교육의 방법적 특성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방법적 특성은 도덕적 논의양식의 독자성과교육 대상 학생의 도덕적 발달 단계에 대한 고려, ‘도덕·교육의 연계성’에 의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도덕적 논의 양식의 독자성으로부터 드러나는 도덕과 교육의 방법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덕과에 포함된 지식이나 원리나 규범들은 다른 교과와 관련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과가 고유한 특성을 지니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교과를 특징짓는 것은 그 교과 속에 어떤 요소, 어떤 지식들이 있느냐 보다는, 그것들이 어떤 방법론적 특성에 의해 획득된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각 교과는 그 자체의 특유한 탐구의 원리와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교과들은 자연 현상과 인간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지식들로써 구성되어 있고, 그 속에는 그러한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적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다. 수학과는 사고의 규칙과 형식을 전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논리적 사고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 예능 교과는 심미적 생활 경험을 체계화하고, 미적 표현과 감상의 원리를 담고 있다.

도덕과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논의 양식을 통해 도덕적인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룬다. 도덕적인 문제에는 사람들의 인격이나 이해 관계가 개입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적절한 절차와 논의 양식들을 발달시켜 왔다. 윤리학자들이 발달시켜 온 규범적 가치에 대한 정당화의 과정이나, 도덕 교육학자들이 개발한 다양한 도덕적 문제 해결의 과정 등이 도덕적 논의 양식의 특성을 보여 주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과 교육에서는 이 같은 독자적인 도덕적 논의 양식을 토대로 학생들이 도덕과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도덕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적절한 안목을 발달시켜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의적 영역과 가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의 개발은 도덕과 교육에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배려(caring)의 도덕성에 대한 연구나 도덕 지능에 관한 연구, 그리고 최근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은 도덕과 교육에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교육 대상 학생의 도덕적 발달 단계와 관련된 도덕과 교육의 방법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덕과 교육의 실제 과정은 구체적인 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 대상 학생의 도덕적 발달 단계에 대한 고려가 교육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초등학교 3~6학년의 '도덕'교과 교육은 1,2학년의 '바른 생활'교과 교육을 출발점으로 하여 중·고등학교 도덕과 교육으로 이어지는 계열적 관계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다. '바른 생활' 교과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도덕적 발달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예절, 도덕 규범의 습관화에 강조를 두고 있고, 초등학교 3~6학년 도덕과는 저학년 '바른 생활' 교과와 중·고등학교 '도덕'교과간의 중간 단계로 기본적인 규범의 습관화를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중핵적인 규범들의 내면화를 통해 점차 자율적 도덕성 형성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데 지도의 초점을 둔다.

중·고등학교 도덕과는 도덕적 문제 사태 해결과 가치 판단 및 선택 능력을 길러 자율적 도덕성을 습득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은 모든 교과 수업과 학교 생활 전반, 그리고 가정 및 지역 사회의 생활과 연계 지도를 필요로 하는 교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도덕과는 학생들이 도덕 수업 시간에 배운 도덕적 가치, 규범을 실제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구현하면서 바람직한 덕과 인격을 형성할 때에 비로소 그 의도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교과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과 교육은 도덕 수업 시간을 넘어 일상 생활이나 특별한 의식 활동을 통한 도덕 교육으로 확대, 연결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일상 생활의 장은 크게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 사회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학교를 중심으로 하면서 가정 및 지역 사회와 연계된 도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도덕과의 기능

#### ① 가치 통합적 기능

우리가 보통 가치 판단이나 도덕적 판단을 할 때에는 개별적 행동이나 행위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언제나 여러 가지 기준과 관련되어 있다. 가치의 판단에서는 언제나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이 적용이 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일상적 생활 장면에서 당면하는 문제에 반드시 하나의 기준만이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효도와 우정이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관계하는 이상, 효도를 만족시키면 우정을 희생시켜야 하고, 우정을 만족시키면 효도를 희생시켜야 하는 장면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격을 구성하는 신념 체제 속에 내면화된 여러 규범, 원리, 기술들이 구체적 생활 장면에서 적용될 때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조화로운 적용도 있을 수 있다. 도덕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은 여러 가지 규범이나 가치 기준을 내면화하고 있다. 이것들은 그 사람의 인격을 특징짓는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내면화된 가치들이 한 개인의 가치 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각각의 상호 모순성이나 이질성으로 인하여 서로 충돌하거나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수도 있다. 이러한 인격은 통합되지 못한 인격이다.

도덕과 교육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가정·학교·사회생활의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획득한 여러 가지 가치와 규범들의 상호 의존적 관계나 모순성을 파악하면서, 하나의 통합된 가치 체계를 가진 인격을 형성하도록 돕는 일이다.

#### ② 사회 통합적 기능

위의 가치 통합적 기능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자인 각 개인이 내면화시킨 규범들 간의 모순이나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롭고 통합된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도덕과 교육의 역할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같이 도덕과가 교육의 일차적인 기능은 각 개인의 통합된 인격 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개인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이므로, 개인 내부의 가치 통합과 동시에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성향의 함양이 요구된다.

여러 개인이 모여 이룩한 사회생활이 원만하고 바람직하게 영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그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행위의 원리를 공유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행위의 원리, 곧 도덕적 규범들을 공유함으로써 그 사회는 집단으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과 교육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이고 중핵적인 도덕 규범들을 다음 세대에 전수 시킴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간의 통합성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하여, 도덕과 교육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자신의 자율적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다원적이고 이질적인 신념 체계들과 함께 사회를 성립시킬 수 있는 원리를 공유하게 하고, 그것에 따른 성향을 함양시킴으로써 사회의 통합을 이루게 한다. 이와 같은 개인의 가치 통합적 기능과 사회 통합적 기능은 도덕과 교육의 기능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다.



### 3) 도덕과의 목표

#### (1) 도덕과 교육의 목표 체계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도덕과가 가장 강조하는 목표는 세계화 시대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생활을 습관화하며, 도덕 규범을 익히는 것이다.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부딪히는 도덕적 문제를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적 차원에서 이룰 수 있는 것 외에도 사회에서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올바른 시민 의식과 사회, 국가,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하는 의식과 태도를 함양한다. 이런 바람직한 도덕적 성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상을 세우고, 그것을 합당한 원리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 요구된다.

초등학교 3~6 학년 시기에는, 도덕적 발달 단계에서 볼 때 저학년 단계에서 습득하는 생활 습관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예절의 기본과 도덕 규범의 의미와 근거를 이해하여 실천을

위한 내면화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성향, 판단 등을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천이나 도덕적 지식의 습득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학생들의 연령이 어리고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아제의 발달 단계 이론에 의하면, 초등 학교 3, 4학년의 연령이면 구체적인 것을 매개로 사고한다면 초보적인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무조건 어리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도덕적으로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기회를 주지 않기보다는, 오히려 초보적 단계일지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장래에 보다 성숙한 도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초등 학교 3, 4학년의 도덕적 발달 단계는 초등 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중간의 연결 단계로서, 학생의 도덕성과 도덕적 행위 발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제7차 교육 과정에서 '도덕' 교과가 가장 강조하는 목표는, 세계화 시대에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도덕규범을 익히는 것'이다.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부딪히는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에서 이를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사회에서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올바른 시민 의식과 국가·민족 의식,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의식과 태도를 함양'한다. 이와 같은 바람직한 도덕적 성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상을 세우고, 그것을 합당한 원리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 요구된다.

## (2) 학년별 구체적 목표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덕과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졌다.

첫째, 학교급과 학년간의 계열성을 인식하여 각 학교급과 학년의 학생들이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를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낮은 학교급과 학년에서 기본 생활 습관 및 도덕적 규범의 이해에 중점을 두고, 높은 학교급과 학년에는 도덕적 사고력과 자율적 도덕성의 수준을 높이며, 자율성을 강조하는 도덕성 획득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초등 학교 전 학년에 걸쳐 계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가정·이웃·학교·사회·국가·민족 생활의 전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상황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다룰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러면서도 내용상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저학년에서는 일상 생활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개인·가정·학교·이웃·사회 생활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 같은 일반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개념은 주로 고학년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일반적 원리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구성된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3~4학년에서는 첫째, 인간이 동물과 달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까닭을 이해하고, 다양한 삶에서 일어나는 가치의 갈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판단 능력과 인간 존중의 태도를 함양한다.

둘째, 가정·이웃·학교·사회 생활에서 요구되는 도덕 규범과 예절을 익힌다. 도덕적 인지능력을 함양하여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전통 도덕과 현대 산업 사회의 시민 윤리를 함양하여 민주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도덕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을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한다.

셋째,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국가, 민족으로 확대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한다. 한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을 이해하고,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제대로 알며, 통일을 이루려는 태도를 양성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세계화의 시대에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며 타민족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한다.

5학년은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도덕 규범을 익히고, 일상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시민 의식과 국가·민족 의식,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기른다.

첫째,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삶의 다양성에 따른 가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 판단 능력의 신장과 함께 인간 존중의 삶의 자세를 지닌다.

둘째, 가정·이웃·학교 생활에서 요구되는 도덕 규범과 예절을 익히고, 이러한 생활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문제 사태들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가치 판단 능력을 신장하여,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 태도와 실천 의지를 지닌다.

셋째, 전통 도덕과 시민 윤리를 중심으로 하는 오늘날 민주 사회의 도덕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를 합리적이고도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여 원만한 사회 생활을 영위하려는 태도와 실천 의지를 지닌다.

넷째, 국가, 민족, 민족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자세를 지니고, 국토와 민족



분단의 현실 및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 과제를 파악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하며, 통일 이후에 기대되는 바람직한 한국인 및 세계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6학년은 초등 학교 교육의 마무리 단계이다. 따라서 교육 내용은 3, 4, 5 학년의 내용을 어느 정도 포괄하면서도 보다 보편적인 상위의 도덕적 원리 혹은 문제들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학교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각 생활 영역별로 주요 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생활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독립된 주체로서 개인의 도덕적 성장에 관련된 문제 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 판단 능력과 실천 의지를 함양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였다. 성실은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윤리에서 강조되던 덕목으로 모든 일에 진실 되고 몸과 마음을 바쳐 노력하는 것을 뜻하며, 생명 존중은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 모두의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으로 현대 사회의 인간 소외와 환경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 그리고 개인 생활 영역의 주요 가치·덕목은 성실과 생명 존중이다.

둘째, 가정·이웃·학교 생활 영역은, 개인 대 소속 집단 성원들 간의 인간적인 유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도덕 규범으로, 가정·이웃·학교 생활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사랑과 관용의 자세, 학교·교장의 발전과 협동 등의 내용을 선정하였다. 특히, '학교·교장의 발전과 협동'은 지역화 내용으로서 학교나 교사 수준에서 적절한 소재를 선택하여 지도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이웃·학교 생활 영역의 주요 가치 덕목은 경애와 애교·애향이다.

셋째, 사회 생활 영역에서는 민주 시민 생활의 도덕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법과 규칙을 잘 지키기,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 그리고 자연보호와 애호 등을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사회 생활 영역을 인간 사회에서 자연으로 까지 확대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배려도 함께 요구하고, 이를 위한 실천 방안을 탐색하도록 내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사회 생활 영역의 주요 가치·덕목은 준법과 타인에 대한 배려 및 환경 보호 등이다.

넷째, 국가·민족 생활 영역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민족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통일을 대비하게 하고, 해외 동포들과의 일체감을 협력 방안을 탐색하게 하며, 더 나아가 세계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일

국가, 해외 동포, 그리고, 세계 평화 등의 소재를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국가·민족 생활 영역의 주요 가치·덕목은 민족애와 평화 통일 및 인류애 등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려면,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바른 생활' 2년 동안과 '도덕' 4년 동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초등 학교 6년간을 바람직한 도덕성 함양의 기반을 이루는 기간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체계적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전체적 조망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점진적 방법을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 4) 도덕과의 내용

##### (1) 내용 체계

'도덕' 교과와 내용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게 구성하려고 하였다. 개인 생활은 개인적 가치와 덕목인 생명 존중, 성실, 정직, 자주, 절제 등을 강조하였다. 가정·이웃·학교 생활은 경애, 효도, 예절, 협동, 애교, 애향을 중시하였다. 사회 생활은 준법, 타인 배려, 환경 보호, 정의, 공동체 의식 등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국가와 민족 생활은 국가에, 민족애, 안보 의식, 평화 통일, 인류애 등을 주요 가치와 덕목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을 학년별로 보면, 3학년과 4학년에서는 개인과 그 주변인 가정, 이웃 및 학교 생활을 다른 생활 영역보다 더 많이 다루었고, 5학년과 6학년에서는 사회, 국가 및 민족 생활 영역을 더 많이 다루었다.

사회 생활은, 3학년에서 '거리·교통 질서 지키기', '환경 보호하기'를 다루었고, 4학년에서는 '공공 장소에서의 예절과 질서', '공정한 생활 태도'를 다루었으며, 5학년에서는 '타인의 권익 존중', '공익 추구의 생활', '민주적 절차 준수'를, 6학년에서는 '법과 규칙 잘 지키기',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 '자연 보전과 애호'를 각각 다루었다.

생활 영역별, 학년별 교육 과정 내용 요소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주요 가치 덕목	교육 과정 내용 요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개인 생활	생명 존중 성실 정직 자주 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척결, 위생, 정리 정돈</li> <li>· 맡은 일에 책임 다하기</li> <li>·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른 몸가짐</li> <li>· 스스로 생각 하고 실천하기</li> <li>· 시간을 아끼고 잘 지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직한 생활</li> <li>· 절제하는 생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을 소중히 하기</li> <li>·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li> </ul>
가정 · 이웃 학교 생활	경애 · 효도 예절 협동 애 교·애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도와 우애</li> <li>· 인사, 언어 예절</li> <li>· 약속과 규칙을 잘 지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절과 양보</li> <li>· 친족간의 예절</li> <li>· 친구사이의 믿음과 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아끼고 공경하는 마음</li> <li>· 이웃과 다정하게 지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랑과 관용의 자세</li> <li>· 학교·교장의 발전과 협동</li> </ul>
사회 생활	준법 타인 배려 환경 보호 정의 공동체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리·교통 질서 지키기</li> <li>· 환경을 보호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장소에서의 예절과 질서</li> <li>· 공정한 생활 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의 권익 존중</li> <li>· 공익 추구의 생활</li> <li>· 민주적 절차 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과 규칙을 잘 지키기</li> <li>·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li> <li>· 자연 보전과 애호</li> </ul>
국가 · 민족 생활	국가에 민족애 안보의식 평화 통일 인류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라 사랑</li> <li>· 분단 현실과 통일 필요성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 문화 유산 애호</li> <li>·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발전에 협력</li> <li>·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li> <li>· 올바른 국제 문화 교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 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 의지</li> <li>· 해외 동포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li> <li>·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li> </ul>

(2) 도덕과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

제7차 도덕과 교육 과정의 내용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 개인의 도덕적 성장에 필요한 요소와 인격 형성에 필수적인 규범을 가능한 한 내용 요소로 선정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척결, 위생, 정리 정돈', '맡은 일에 책임 다하기',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하기' 등 10개의 내용을 선정하였다.

둘째, 제 7차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각 영역별로 주요 가치와 덕목을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가치와 덕목의 예는 '생명 존중', '경애', '준법', '인류애' 등이다.

셋째, 우리의 전통적 규범과 가치,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주 시민 사회의 가치와 덕목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였다. '효도', '공동체 의식', '협동', '준법', '정의' 등이 그것이다.

넷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고, 초등 학교 학생들의 경험 내용과 사고 수준에 맞는 실천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정직', '예절', '성실' 등이 그것이다.

다섯째, 오늘날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문제들을 도덕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타인 배려', '환경 보호', '평화 통일'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선정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선정함에 있어서 체계성과 학생들의 발달 상황에 적합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상이 제 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특히 강조하는 점이다.

교육과정의 조직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두었던 학년간의 연계성과 체계성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의 적용을 받는 10학년까지의 계열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였으며, 3, 4, 6 학년도 이러한 맥락에서 내용선정을 하였다.

'도덕' 교과와 내용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 많은 주제를 다루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 속에 공통으로 흐르는 인간성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도덕 교과와 내용은 어떤 특정 학문에 의존하여 해결되기 어렵고 여러 학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성격을 가진다.

도덕성의 발달을 계열적으로 고려하여 초등학교 3, 4 학년의 도덕과 내용은 1, 2학년 '바른 생활' 교과와 행동과 지식을 더 발전시키고, 나아가 5, 6학년의 내용에 맞는 도덕적 지식과 행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3, 4 학년은 '개인 생활', '가정·이웃·학교 생활', '사회 생활', '국가와 민족 생활'의 교육 과정 내용을 처음으로 다

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은 제6차 교육과정의 68 개 내용 요소를 4개로 줄여서 확정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개인 생활은 청결, 위생, 정리 정돈, 맡은 일에 책임 다하기, 물건 아끼고 소중히 하기를 다루었다. 이 내용들은 초등 학생들이 사회에서 최소한 민주 시민으로서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청결한 생활과 위생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는 것은 모든 개인 생활의 근본이다.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으로써 민주 사회에 당당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4학년에서는 바른 몸가짐,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기, 시간을 아끼고 잘 지키기를 다루었다. 바른 몸가짐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몸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우에 맞지 않는 몸가짐은 자신에게도 나쁘지만 타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이다. 바른 몸가짐은 평소의 태도, 행동, 가치관이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런 몸가짐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몸가짐을 바르게 가지기 위한 생활의 습관화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시하는 가치와 덕목은 성실이다. 가정·이웃·학교 생활은 3학년에서 효도와 우애, 인사와 언어 예절, 약속과 규칙 잘 지키기를 다루었다. 최근에는 핵가족화 현상과 소자녀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부모와 자녀간의 효도나 형제 자매 간의 우애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가상 공간에서의 대화 기회가 급증함에 따라 전통적인 인사와 언어 예절이 잘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사와 언어 예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4학년에서는 친절과 양보, 친척간의 예절, 친구 사이의 믿음과 우정 등을 다루었다. 친절과 양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는 생활 주변에서 조그마한 친절이 개인과 사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과 양보를 주고받을 때의 마음가짐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대화와 탈근대화는 핵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을 가져왔다. 우리는 가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친척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친척간의 호칭과 촌수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 친구의 중요성과 의미를 아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시하는 가치와 덕목은 경애, 효도, 예절 등이다.

사회 생활은 3학년에서 거리·교통 질서 지키기, 환경 보호하기 등을 다루었다. 인류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안락한 삶을 누리 왔지만 환경을 오염시켰다. 인간은 하나뿐인 지구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러워진 지구를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파괴를 알아보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쓰레기 분리 수거, 자원 재활용 등을 생활화하고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4학년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예절과 질서, 공정한 생활 태도 등을 다루었다. 공공 장소에서의 예절은 누구나 지켜야 한다. 한 사람의 잘못이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컴퓨터와 이동 전화의 보급과 더불어 야기되는 도덕적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중 도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시하는 가치와 덕목은 준법과 환경 보호 등이다.

국가와 민족 생활은 3학년에서 나라 사랑, 분단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 인식 등을 다루었다. 나라 사랑은 민족 사랑이고,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닫힌 마음으로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 애국심은 국수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 발전의 저해 등을 인식해야 한다. 이산 가족의 고통, 민족의 직면한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학년에서는 민족 문화 유산 애호,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등을 다루었다. 민족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조들이 남겨 놓은 대표적 유산과 그 가치를 이해하여야 한다.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애쓴 선조들의 정신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여기서 중요시하는 가치와 덕목은 조국애와 평화 통일이다.

제7차 교육과정 내용 중에서 5, 6학년의 내용요소는 다음과 같다.

개인생활은 5학년에서 ‘정직한 생활’, ‘절제하는 생활’을 다루었고, 6학년에서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생활’, ‘생명을 소중히 하기’를 다루었다. 여기서 중요시하는 가치와 덕목은 성실, 정직과 절제 등이다.

가정·이웃·학교 생활은 5학년에서 ‘서로 아끼고 공경하는 마음’, ‘이웃과 다정하게 지내기’를 다루었다. 6학년에서는 ‘사랑과 관용의 자세’, ‘학교·교장의 발전과 협동’을 다루었다. 여기서 중요시하는 가치와 덕목은 경애, 협동, 애교·애향 등이다.

사회 생활은 5학년에서는 ‘타인의 권익 존중’, ‘공익 추구의 생활’, ‘민주적 절차 준수’를 다

루었다. 6학년에서는 ‘법과 규칙을 잘 지키기’,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 ‘자연 보전과 애호’를 다루었다. 여기서 중요시하는 가치와 덕목은 준법, 타인 배려, 정의, 환경 보호 등이다.

국가·민족 생활은 5학년에서 ‘국가 발전에의 협력’,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올바른 국제 문화 교류’를 다루었다. 6학년에서는 ‘통일 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해외 동포에 대한 이해와 사랑’,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다루었다. 여기서 중요시하는 가치와 덕목은 국가애, 평화 통일, 인류애 등이다.

## 2. 실태와 문제점

초등학교 도덕과의 현재 실태를 살펴보면, 명목상의 중요성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소위 주요 교과 혹은 주지 교과들과는 비교도 안되게 주변적인 위치로 밀려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당 1시간이라는 시간 배당도 그렇고, 학교 행사 등으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교과도 바로 도덕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학교 교사들의 도덕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 문제이다. 교사들은 도덕과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며, 실제로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거기다가 학생들의 도덕의식이나 도덕교과에 대한 인식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 1) 교과의 내용과 방향 문제<sup>20)</sup>

1973년에 고시된 제3차 교육과정에서 정규 교과로 자리를 잡게 된 이래로 초등학교 도덕과는 4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간의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제4차, 제5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소위 ‘인지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면서 하나의 교과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었다. 교육과정 면에서 보면, 목표와 내용이 체계화, 상세화되고 새로운 교수 방법과 평가 기법들이 도입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 개정 시에 도덕 교과의 ‘실효성’문제가 제기되면서, 도덕 교과 시간 축소가 이루어졌다. 도덕과의 실효성 문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한마디로, 도덕 교과 교육은 그 결과로 학생들이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게 되고, 더 나아

20) 조난심(2000), 전계서, pp. 106~119 요약, 전체

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개선’이 눈에 보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도덕적 상황은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이다. 따라서, 이들은 학교의 도덕교과 교육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학교의 도덕교과 교육은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는 도덕교과 폐지론 혹은 축소론과 같은 주장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학교 도덕교과 교육의 성격 혹은 과제를 분명히 하라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는 확실하며 그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어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학교 도덕교과 교육의 주된 임무인 것이다. 이러한 도덕교육의 과정은 본질상 가정에서 부모가, 사회에서 성인들이, 그리고 학교에서 도덕과 수업 이외에 교사가 학생들을 도덕적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실효성에 대한 요청은 6차 교육과정기의 초등학교 도덕교과 교육에서 행동 실천을 강조하게 하였다. 6차 도덕 교과서에 「실제로 해봅시다」라는란을 두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인성 교육’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요구가 이제 도덕교과 교육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 같다. 제7차 도덕교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에서 그리고 제7차 도덕교과 교과서의 개정 방향에서 밝히고 있듯이, 제7차 초등학교 도덕교과 교육에서는 인성교육을 도덕교과 교육에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제7차 초등학교 도덕교과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수용하는 방식은 종래에 표방했던 ‘인지적 접근’을 철회하고 도덕성의 지적인 측면, 정의적 측면, 행동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통합적 접근(포괄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도덕성의 세 가지 측면 곧 도덕적 인식, 가치의 판별, 관점의 채택, 추론, 의사 결정 등을 구성 요소로 하는 인지적 측면, 양심, 자긍심, 감정이입, 선을 사랑하기, 자기 통제, 겸양 등을 구성 요소로 하는 도덕적 감정 그리고 도덕적 의지, 행동 수행 능력, 습관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는 도덕적 행동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대 도덕교육의 패러다임을 형성했던 콜버그(L.Kohlberg)류의 인지적 접근을 내세우지 않고, 인격교육 운동을 이끄는 사람 중의 하나인 리코나(T.Lickona)식의 포괄적인 접근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을 표방하는 제7차 초등학교 도덕교과의 구성과 수업의 흐름과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도덕 교과서의 구성과 교수·학습의 흐름과 문제점

① 도덕 교과서의 구성 체제의 문제점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반영하여 제7차 도덕 교과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체제로 하였다. 곧 한 제재가 3차시로 구성되며, 각각의 차시에는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 감정적 측면 그리고 행동적 측면이 중심이 되도록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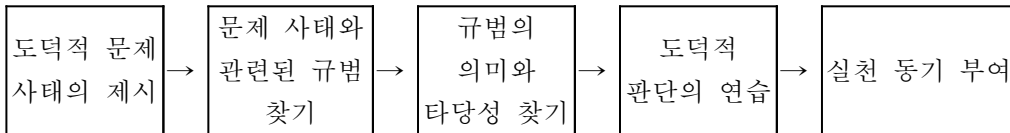
차 시	체제상의 특징
1차시(인지적 측면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 명</li> <li>· 도입 글(양쪽에 걸친 삽화)</li> <li>· 제재를 안내하는 발문이나 학습 목표 제시</li> <li>· 도덕적 판단을 위한 다양한 문제 상황 제시:생활 주변 이야기, 사례중심(글, 삽화, 만화, 사진 등으로 제시)</li> <li>· 문제 상황과 관련된 발문</li> </ul>
2차시(정의적 측면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동적인 예화 제시(압축된 형태로 제시, 두 가지 이상의 예화를 제시해도 좋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공유 할 수 있는 기회 제공)</li> <li>· 느낌이나 감정과 관련된 발문, 자신의 생활과 비교</li> <li>· 감동을 주는 동시, 동요, 광고 등 제시 : 다른 사람의 입장 생각하기(감동을 주는 동시, 동요, 사진 제시)</li> </ul>
3차시(행동적 측면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천할 내용 제시하기/실천해보기:모범적인 실천 사례 찾기, 실제로 해보기</li> <li>· 체험을 위한 활동 : 직접 체험 활동(봉사 활동, 예절 연습 등), 간접 체험활동(역할놀이, 시뮬레이션, 미래/과거 체험하기 등)</li> <li>· 실천 다짐하기(확인하기)-마음에 새겨둡시다.</li> <li>· 관련된 명언</li> </ul>

그런데 각 제재마다 3차시의 수업은 학생들이 도덕 규범을 이해하고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고 있으나 제시된 행동 실천을 가능한 직접 교실에서나 다른 장소에서 체험해 보도록 교과서를 구성하거나, 제시된 문제상황이나 예화 또는 활동이

학교 실정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의 수준에 적절한 새로운 문제 상황이나 예화 또는 활동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도덕과 교수·학습 지도와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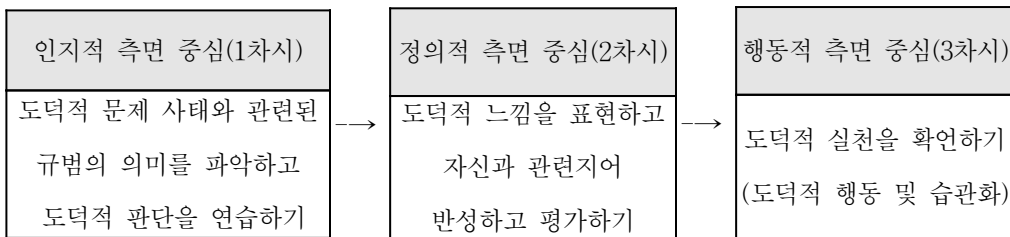
제4차 교육 과정기에 인지적 접근을 도입한 이래로 초등학교 도덕과의 교수·학습을 위한 일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소위 ‘가치 갈등 수업의 절차’를 뜻하였다.



이제까지 도덕과 수업에서는 이 절차 모형을 근간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양한 수업 모형들 - 역할 놀이 수업 모형, 개념 분석 수업 모형, 가치 갈등 수업 모형, 집단 탐구 수업 모형, 가치 명료화 수업 모형, 콜버그의 토론 수업 모형 등-을 도입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러한 구성 모형은 교과서의 제재 구성 방식과도 긴밀하게 연관된 것이었다.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교과서는 위와 같은 종래의 인지적 접근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도덕적 지식, 정서, 행동이 통합적으로 지도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제7차 교과서를 지도하기 위한 도덕과의 수업 모형에도 변화가 와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의 취지에서 일반적인 도덕과 수업의 과정과 절차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를 통한 도덕과 수업은 교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동적 측면 중심의 3차시 수업에서 도덕적 행동 그 자체를 각 제재, 각 차시마다 반드시 다룰 수는 없다. 대체적으로는 이 세 가지 영역이 고루 다 다루어지도록 노력하겠지만, 이는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서 교수·학습이 완성되고, 행동 중심 영역 중 도덕적 행동과 습관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업 이후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수업의 형태가 운영될 수 있다.



위와 같이 도덕과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수업의 일반적 절차를 구성하고 있는 인지, 정의, 행동 세 영역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차시 : 인지적 측면 중심의 수업

인지적 측면 중심의 수업에서는 주로 규범과 관련된 도덕적 이해, 도덕적 사고와 판단력 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인지적 측면 중심 수업에서의 주된 수행 평가 요소로는 문제 사태로부터 도덕적 문제를 도출해 내는 능력, 도덕적 규범의 이해 정도, 도덕적 규범의 필요성 대한 인식 정도,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정도 등을 들 수 있다.

② 2차시 : 정의적 측면 중심의 수업

정의적 측면 중심의 수업에서는 규범과 관련된 도덕적 느낌을 표현하고, 자신과 타인의 도덕적 정서를 공유하며, 도덕적 모범에 비추어 자신을 반성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정의적 측면 중심 수업에서의 주된 수행 평가 요소로는 도덕적 관심 정도, 자신의 도덕적 가치를 느끼고 타인의 도덕적 가치를 공유하는 정도, 도덕적으로 반성하는 정도, 규범과 관련된 자신의 태도나 경향성 평가 등을 들 수 있다.

③ 3차시 : 행동적 측면 중심의 수업

정의적 측면 중심의 수업에서는 규범과 관련된 도덕적 행위 능력, 도덕적 실천과 습관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여기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습관화하기’ 단계는 매 차시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수업 시간에 다루어지지 않고, 수업 이후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습득하기를 기대하는 종국적인 목표(terminal goal)로 설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행동적 측면 중심 수업에서의 주된 수행 평가 요소로는 모범적인 도덕적 행동 이해하기, 도덕적 실천에 대한 확인 정도,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정도, 도덕적 행동의 습관화 정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변화는 상당 기간 지속되리라고 예상되며, 차기 교육과정 개정도 이러한 방향과 일관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행동적 측면의 수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3차시 수업에서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실효성 있게 제공되어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동적 측면에 중점을 둔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인성 교육에 대한 요구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도덕 '교과'라는 종래의 교육 체제가 달성하지 못했던,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적 처방을 원하는 것이다. 우선, 인성 교육이 포괄하는 교육의 영역은 도덕 교과와 같은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범교과, 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교운영, 가정 교육, 지역사회 활동 등과 같이 광범위하다. 도덕과 교육에서도 이러한 광의의 도덕 교육 영역과의 연결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초점은 도덕 교과의 수업 시간인데 비해서, 인성 교육에서는 도덕적 행동이 일어나는 다양한 장면들 자체가 인성 교육에서의 활동 영역이 된다.

따라서 학교에서 도덕 교과 교육이 아니라, 인성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는 요구는 도덕 교과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요청하는 셈이다. 모든 사회적 실천이 사회 변화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듯이,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위상과 발전 방향도 우리 사회의 거시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적 요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도덕과 교육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 (2) 도덕과 교육과 인성, 생활적응 교육 및 문제점

최근에 도덕과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덕목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크게 보아 인성 교육과 '생활적응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청소년 비행의 증가 등 각종 비도덕적 현상들은 학교에서의 인성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켰고,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되고 있는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과 자살 등의 문제는 학생들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인성 교육이란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포괄적인 덕목 교육을 말하고, 생활적응 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이 학급,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부딪치는 심리적, 사회적 적응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인성 교육과 생활적응 교육을 도덕과 교육과 비교해 보고, 이러한 교육 활동들을 도덕과 교육에 도입했을 때 도덕과 교육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 ① 인성 교육과 도덕과 교육

도덕과 교육은 인성 교육에 포함되지 않는가? 이에 대해, 인성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답이 달라지겠지만, 라이언(K. Ryan, 1996)은 다음 같은 것들은 인격 교육이 아니라고 한다.

인격 교육이 아닌 것 : 첫째, 인격 교육은 미해결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에 대하여 현재 미국 사회에서 옳다고 여겨지고 있는 어떤 관점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인격 교육은 인지적 도덕 발달 단계에 특별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셋째, 인격 교육은 도덕적 추론이 아니다. 넷째, 인격 교육은 민주적 학교 운동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다섯째, 인격 교육은 어느 특정 과목이나 수업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의 모든 활동들을 통하여 인격 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격 교육이 아닌 것을 살펴보면, 인격 교육의 주된 의미가 드러난다. 인격 교육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들이 표출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도덕적 쟁점들이 아니라, 道와 德 그리고 공동체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가치들을 가르치려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문제에 대한 개인의 선택 능력과 도덕적 추론이 아니라 가치와 덕목을 적극적으로 주입하는 교화를 포함한다. 그리고 특정한 과목이나 시간을 통해 인지발달적 자극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도덕 교육에서 활용해 온 다양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가르치고, 또 학교 생활의 총체성을 인격 교육의 場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볼 때, 인격 교육은 인지 발달적 접근에 의한 도덕적 추론 중심의 자율론적 도덕 교육을 전통적인 덕목 교육으로 환원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인격 교육 운동에서는 일상적이고 전통적인 도덕 교육의 내용과 방법들이 다시금 부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성(인격) 교육의 개념과 성격을 살펴보면, 인성 교육이란 도덕과 교육의 활동과 대부분 중첩되는 것이되, 가치의 탐구나 추론, 선택과 같은 교육 활동보다는 핵심적인 덕목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내면화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도덕과 교육과 인성 교육의 방법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방법은 전통적으로 교과 수업을 해온 방식 곧,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고, 토론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6차 교육과정기의 도덕과 교사용지도서에는 도덕과 수업의 일반적 절차와 6가지 수업 모형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기의 도덕과 교사용지도서에는 앞 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도덕과 수업의 일반 모형과 10가지 수업 모형이 제시되고 있다. 배려(caring)모형, 가정 연계 모형, 봉사학습 모형, 놀이 모형, 가상체험모형, 역할놀이, 개념 분석 모형, 가치 갈등 모형, 집단 탐구 모형, 가치명료화가 그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시도하고 있는 일부 모형을 제외하고는, 도덕과 수업 모형은 대체로 교실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나 감정을 자극하고, 가치를 선택하고 도덕적 판

단을 해보게 하는 방법들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인성 교육에서는 다양한 모든 도덕 교육의 접근 방법들을 활용한다. 리코나 (T.Lickona,1993)가 제안한 인격 교육의 방법을 통해 인성 교육 방법의 윤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리코나는 만약 학교가 그 도덕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학생들의 건전하면서도 다양한 인격을 지속적으로 도모해내며, 인격의 세 가지 측면-도덕 문제에 대해 알기, 느끼고 의욕하기, 그리고 행동하기-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려 한다면, 학교는 모름지기 포괄적이고 전체론적인 접근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교실에서 구체적으로 인격 교육의 포괄적인 접근을 취하려면 각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일들에 유념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째, 교사는 온정으로 돌보고 모범을 보여주며, 훌륭한 지도자로서 행동해야 한다. 즉, 교사는 사랑과 존경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좋은 모범을 보여주며, 교사와 학생 사이의 1대1 개별 지도 및 학급 전체 토론 등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둘째, 학급을 도덕적 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이 서로를 하나의 귀중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존중하며, 온정적으로 배려하고 그 집단에서 가치 있는 구성원이라고 느끼고,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도덕적 훈련을 실행해야 한다. 도덕적 추론 능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으로 규칙에 순응하며 타인에 대한 존중심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는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일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주적인 교실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즉, 학생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교실을 생활하고 공부하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책임감을 갖도록 이끌어야 한다.

다섯째, 교과 교육활동을 통해 가치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윤리적 내용이 풍부히 담긴 학과목들, 예컨대, 문학, 역사, 과학 등과 좋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가치를 가르치고 도덕적 문제들을 탐구해 보도록 장려하는 일이 또한 중요하다.

여섯째, 협동 학습을 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즉, 학생들이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올바른 관점을 취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협동 학습을 적극 실행해야 한다.

일곱째, 직무와 관련된 양심을 발달시켜야 한다. 즉,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을 기르며, 타고난 자질을 잘 개발하고 자기의 일이 타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감수성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여덟째, 도덕적으로 숙고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서, 조사연구, 논문작성, 정기간행물의 지속적인 접촉과 검토, 토론과 논쟁 등에 참여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아홉째, 갈등 해결의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덕적 문제를 공정하게 그리고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도덕적 능력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실 밖의 인격 교육 활동으로는 봉사활동 기회 제공, 학교의 긍정적인 도덕적 문화와 풍토 조성, 부모와 지역 사회 인사들을 인격 교육의 동반자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요약해 보면, 인격교육에서는 도덕적 지식, 정서, 태도와 행동을 함께 기르려는 취지에서 다양한 접근들을 동시에 활용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법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도덕과 교육과 인성 교육의 영역 및 방법을 비교해 보면, 인성 교육은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있는데 비해 도덕과 교육은 도덕과 수업 시간에 한정된다. 이렇게 보면, 인성 교육의 영역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그런 만큼 더 모호하다. 반면에, 생활의 과정에서 덕목을 지도한다는 점에서는 도덕과 교육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초등학교에서 실천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도덕과 교육에 비해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과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른 생활 실천 기록 카드 활용</li> <li>· 생활분활용</li> <li>· 선·효행 학생 표창</li> <li>· 명상의 시간</li> <li>· 특별(단체 수련)활동</li> <li>· 일기(반성·선행·효행)쓰기</li> <li>· 대화 및 상담(교장, 교사, 학부모)</li> <li>· 뿌리 찾기</li> <li>· 가정과의 연계(통신문·학부모·교실 등)</li> <li>· 어린이(학급)회</li> <li>· 발표회·행사</li> <li>· 훈화교육</li> <li>· 독후감·독서에 의한 지도</li> <li>· 예절실 운영</li> <li>· 학교 방송을 통한 지도</li> <li>· 가훈 좌우명 갖기</li> <li>· 신문(학교·학급·가족)</li> <li>· 소집단 활동</li> <li>· 편지(교사·부모·친척)쓰기</li> <li>· 전통 문화 교실 운영</li> <li>· 폐휴지 수집 및 재활용</li> <li>· 건전 놀이 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른 생활 훈련 프로그램</li> <li>· 노인 교실 운영</li> <li>· 나의 주장 꿈 발표</li> <li>· 지역 인사 1일 명예 교사제</li> <li>· 애향단 활동</li> <li>· 게시 교육</li> <li>· 내 친구 자랑하기</li> <li>· 불우 교우 돕기</li> <li>· 유적지 답사</li> <li>· 용돈 기입장</li> <li>· 알뜰 시장 운영</li> <li>· 근로 봉사장 제</li> <li>· ‘칭찬제’장</li> <li>· 1일, 월, 분기별 반장제</li> <li>· 생일 잔치(학생)</li> <li>· 1인 1화분 가꾸기</li> <li>· 학부모와 함께하는 야영</li> <li>· 직접 선거제(어린이회)</li> <li>· 이 달의 위인</li> <li>· 인성시상제 운영,</li> <li>· 환경친화운동</li> <li>· 체험활동</li> <li>· 효행일기쓰기</li> </ul>
--	---

### ③ 생활 적응 교육과 도덕과 교육 및 문제점

생활적응 교육이란 학생들이 학교와 사회 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심리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인격을 함양시켜주려는 교육 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생활 지도, 상담 지도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영역이다. 최근에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갖가지 청소년 문제들이 심각해지면서 이러한 영역의 지도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라든가 ‘왕따’ 문제 등은 모든 학부모와 교사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도덕 교육 이전에 건전한 인격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지도 내용적인 면에서 도덕과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과 중첩 혹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도덕과 교육에서 이처럼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들을 다루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도덕 교과 교육에서 반영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앞에서 살펴본 도덕과 교육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이러한 교육 요구들이 ‘교과 교육’이라는 틀과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향후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면, 바로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생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도덕적 문제들이 무엇인가,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이 무엇인가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아 도덕과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덕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일부 연구 학교를 제외하고는 타 교과와의 연계지도가 잘 안되고 있으며, 교과 통합적인 측면에서 도덕과의 가치·덕목에 따른 주제와 관련하여 연계되어 지도되고 있지 않고 있다. 체험중심 계획이 학교별로 교육 과정에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도덕과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짜여 있지 않았고 교수·학습과정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학교가 도덕 공동체화를 위하여 도덕적 가치 규범을 몸에 베이게 하기 위한 도덕적 생활 환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노력도 부족하며,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교육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지도되고 있지 않고 있다.

## 2) 학생의 도덕의식과 실천 문제

우리 학생들의 도덕의식과 행동을 살펴보면 이전에 비해 점점 더 걱정스러운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이러한 점을 개인 도덕 생활, 가정 및 학교 도덕 생활, 사회 생활, 국가 도덕 생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sup>21)</sup>

먼저 개인 도덕 생활 측면에서 보면 기본 생활 습관과 기타 개인을 바로 세우는 일과 관

---

21)허경철 외 (1994), 「인간성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모형 개발 및 평가방안 연구」, 한국 교육개발원, PP. 390~493.

차우규(1997), “초·중학교 학생들의 도덕 의식 및 도덕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p. 58~100.

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규칙 생활, 정리 정돈, 청결 위생, 물자 절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 생활 습관 측면에서 적지 아니한 미흡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주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힘든 일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려는 성향이 부족하고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정당한 절차나 규칙에 따라 살아가려는 양심적이고 정직한 자세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우리 학생들의 자기 통제나 절제의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환각제 복용, 음주와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여학생들의 성 관련 사안도 적지 않는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 및 학교 도덕 생활 측면에서 효도와 경애, 예절 등과 관련하여 보면, 부모에 대한 효도 생활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책임감은 여전히 높으며 가정 내의 우애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모를 모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 이를 기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예절이나 친족간의 예절은 보통 수준이거나 이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가정 내의 남녀 평등의 측면에서도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교 생활에서 상·하급생간에 원만하게 지내는 일과 규칙을 준수하는 일에 있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친구를 사귀에 있어 물질이나 외형적 기준이 더 중시되고 친구간에 필요한 격려와 충고를 해주는 진실된 마음과 믿음으로 사귀는 성향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가정 및 학교 도덕 생활과 관련하여 근래에 특히 주목되고 있는 것이 가출, 자살, 학교 폭력 등의 문제이다. 학생들이 가정 생활에 불만을 느껴 가출이나 자살의 충동을 경험하는 정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사회 도덕 생활 측면에서 보면, 질서, 준법, 타인 존중, 책임, 정의, 봉사 등의 덕목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생활 태도와 실천 성향 정도를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이 여러 덕목에서 대체로 보통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교사들은 질서, 준법 생활에서 그 태도와 행동 실천이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봉사 정신의 경우는 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조화적 자연관이나 사회 정의의 실현 정도에 대한 믿음, 합리적인 소비 생활과 절약 정신 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볼 때 대체로 우리 학생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현실 만족주의, 부정적 사회관, 황금 만능주의 등에 물들어 있어 더불어 사는 삶의 자세 측면에서 적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2)</sup>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대체로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싫어하고, 국가나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보다는 나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즐겁게 살고자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 도덕 생활 측면에서 보면 학생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가에 대한 애착과 긍지, 신뢰감 등은 미약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학생들의 이념적 태도는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도 높고, 사회주의 이념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민족주의적 성향도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지의 정도가 낮고 전반적으로 이념의 본질, 기능, 장·단점, 이념과 국가 생활 관계 등에 관한 기본 관점과 지적 이해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3)</sup> 또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안보 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전쟁이 발발할 경우 나라를 지키기보다는 피난을 가거나 외국으로 나가겠다는 회피적 자세가 성인들에 비해 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의 안보 의식과 안보교육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sup>24)</sup>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도덕성과 자율성 발달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생 중 2, 4, 6학년 15,000명을 대상으로 분석·연구한 결과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적능력은 발달하지만 도덕적 행동능력이나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능력 등이 별로 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 이재분(李在分) 박사 팀은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2, 4, 6학년 학생 15,000명을 대상으로 지적·정의적 발달수준을 분석·연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초등학생의 언어능력, 사고능력, 사회적 능력, 정의적(정서적) 특성 등 4개

22) 손경애(1994), 「인간교육방안연구」, 현대사회연구소, pp. 35~39.

23) 이택휘·이병열(1997), 「안보환경 변화와 국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 pp. 58~71.

24) 김성주 외(1997), 「국민의 호국안보의식 제고 방안: 청소년들의 한국전쟁, 통일, 안보, 국가현실에 관한 의식 조사」, 한국정치외교학회 학술세미나 보고서, p. 84

영역의 학년별 발달상황을 분석한 결과 언어능력과 사고능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지만, 사회적 능력, 정의적(정서적) 특성 능력은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

사회적 능력의 경우 도덕적 판단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향상됐지만 실제 행동은 저학년 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도덕적 판단력 중 책임과 질서 의식은 2학년 학생이 4, 6학년 학생보다 오히려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정서인식, 표현 및 조절 능력 등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향상됐으나 자기 관리 능력은 향상되지 않았다.

정의적 특성 중 학업 관련 특성을 보면 저학년일수록 학습을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꾸준형’ 보다는 ‘벼락공부형’이 많았고 교과목에 대한 흥미도 저학년 때보다 떨어졌다.

특히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지적·정서적으로 더 빨리 성숙하고, 상대적으로 ‘꾸준형’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박사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 및 실천 위주의 도덕교육이 요구된다.”고 말했다.<sup>25)</sup>

제주도내 초등학교 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실태 조사를 위해 타인존중, 협동심, 신의, 준법정신, 공익정신, 정의감의 6개 하위 변인이 포함된 설문지를 제작하여 행정구역과 지역환경을 고려한 도내의 초등학교 9개교의 5~6학년 학생 5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26)</sup>

타인 존중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을 조사한 결과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났다. 개인 특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타인존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타인 존중 의식이 읍·면 지역 보다 높게 나타났다.

협동심에 대한 민주시민의식은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 지역 학생들이 농촌 지역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의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은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농촌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준법정신은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준법준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25) 한국일보, “초등학교 학생의 지적·정서적 발달 수준” : 2002년 2월 6일

26) 고창근(2000), “초등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p. 24~47. 요약

또한 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농촌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익정신은 준법정신은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공익정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농촌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의감에 대한 민주시민의식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정의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농촌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민주시민 의식은 ‘협동심> 정의감> 신의> 타인존중> 공익존중>준법정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협동심과 정의감은 높은 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신의, 타인존중, 공익존중, 준법정신은 높지 않는 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가 강화되어야겠다.

특히 개인 특성에 따른 민주시민 의식의 공통된 흐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5학년이 6학년보다 높으며, 학업성적에 있어서 상위권인 학생이 하위권인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문제점을 지적하면 전반적인 민주시민 의식이 더 높아져야 될 6학년이 5학년보다 낮고, 남학생이 민주시민 의식이 여학생보다 더 급속히 하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곧 학년이 높고 사회화가 될수록 민주시민으로서의 도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정·학교·사회가 그에 따른 대비책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역행하는 민주시민 의식의 구조를 시급히 되돌려 놓아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가정 특성에 따른 민주시민 의식의 공통된 흐름은 부모의 학력이 높거나 사무직종에 근무할 때 높았으며, 거주지역이 크고 도시에 사는 경우에도 높게 나타났다. 또 형제수도 1명이나 4명 이상인 경우보다 2~3명인 경우에 높았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방적·방관적일 때보다 협력적인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볼 때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은 가정, 신뢰롭고 협력적인 가정, 조직사회의 구성원으로 일하는 부모를 둔 가정, 문화 수준이 높고 큰 지역사회에 위치한 가정의 학생일수록 민주 시민 의식 수준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가정의 제반 교육적 환경 여건들도 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학생들의 도덕 발달 상황은 개인 도덕 생활에서 시작하여 가정 및 학교 도덕 생활, 사회 생활, 국가 도덕 생활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며, 따라서 보다 더 많은 교육적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으면 안됨을 알 수 있다.

## IV. 제7차 교육과정 도덕과의 운영 방안

### 1. 위상의 정립과 인성 교육의 강화

학교에서 교과를 통한 도덕교육은 바른 생활과와 도덕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하에서는 바른 생활과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주당 2시간씩 그리고 도덕과는 3~6학년을 대상으로 주당 1시간씩 지도하게 되어 있다. 학교의 주된 활동이 교과 교육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바른 생활과와 도덕과 교육은 학교 도덕교육의 핵심에 해당된다. 따라서 학교 도덕교육을 제대로 운영하고 기대되는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바른 생활과와 도덕과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sup>27)</sup>.

21세기 학교 교육에서는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가치 기반의 형성과 문화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이 요구된다. 초등학교 도덕과는 바로 이러한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가치 기반을 형성하는 거점 교과로서 굳건하게 정착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도덕과의 교육과정상의 위치는 현재와 같이 정규 공통필수 교과의 위치를 유지하고, 배당 시간 수를 확대하도록 한다. 그리고 앞장에서 살펴본 인성 교육과 생활적응 교육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과의 성격 및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변화시키도록 한다.

첫째, 인성 교육이나 생활적응 교육 활동이 주로 도덕과 외의 다양한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지지만, 도덕 교과 자체를 없애고 다른 형식의 교육 활동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인성 교육이나 생활적응 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도덕 교육은 현재와 같은 교과로 설정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도덕교과는 교과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성 교육이나 생활적응 교육에서 요구하는 활동들은 생활 속에서 실천되고 지도되어야 할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도덕과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생활과 연계 짓는 그리고 실천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적은 시간으로 운영할 수는 없으므로, 배당 시간 수를 확대하도록 한다. 즉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이 '인지적 접

27) 이택휘·유병열(2001), 전계서, P. 296.

근'에서 지식·정서·행동을 통합적으로 요구되는 '통합적 접근'으로 새로운 도덕 교육의 방향이 시도되고 있으므로 7차 교육과정에서 1~2학년은 바른 생활이 주당 2시간, 3~6학년은 주당 1시간이 설정되었지만 향후 교육과정에서는 1~2학년은 바른 생활이 주당 2시간, 3~6학년에서도 주당 2시간이 설정되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재량활동은 학교의 특성에 따라 교과와 심화·보충 학습보다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창의적인 재량활동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주당 2시간의 재량시간 중에서 1시간이 정보통신기술교육으로 운영되는 것을 없애고 도덕과 3차시 수업에서 '도덕적 행동하고 습관화하기' 단계에서 부족한 시간으로 재구성하여 범교과 학습활동 중에서 인성교육이나 생활 적응 교육활동으로 운영되어야 겠으며 주당 2시간을 정시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융통성 있게 전일제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활용하거나 블록타임제로 운영하여야 겠다. 특히 학생 개인, 학급 그리고 학교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여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주당 1시간은 부족하다.

그리고 주당 1시간 이상은 체험활동 중심의 인성 교육이나 생활적응 교육 활동을 하도록 한다. 미래의 학교의 중요 역할이 협동적인 인간 관계의 학습에 있다고 볼 때에 이러한 변화는 필요하다.

도덕과 교육에서 인성 교육과 생활적응 교육의 요소들을 확대한다면, 그러한 교육 활동의 특성상, 현재와 같은 교과 수업의 틀에만 한정한다면 잘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향후 도덕과 교육에서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만이 아니라, 다양한 실천 및 체험 활동 경험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앞에서 살펴 본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운영 및 지도 방법상의 개선을 모색해 볼 수 있다.<sup>28)</sup>

첫째, 도덕과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에는 국가 수준에서 모든 시간 단위의 활동을 전부 채우지 말고 일정 부분은 학교나 학급 수준의 활동 시간으로 남겨두도록 한다. 인성 교육이나 생활적응 교육에서의 초점은 교육과 학생 생활과의 직접적인 연계였다. 그런데 국가 수준에서 도덕과 교육의 내용을 모두 결정한다면, 이러한 특성을 살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의 내용만이 아니라, 학생 개인, 학급 그리고 학교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여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둘째, 도덕과 수업 시간 운영을 융통성 있게 하여 학생들이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28) 조난심(2000), 전계서, PP. 119~122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블록타임제, 체험활동 시간, 봉사학습 시간 등을 운영하도록 한다.

셋째, 도덕과 교육에서는 교과서만이 아니라, 학습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자료들을 구안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인성 교육을 위해 개발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수·학습 자료들은 향후 다양한 도덕과 교육 지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행동적 측면에 주안점을 둔 도덕과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져서 보다 손쉽게 교실 수업에서 도덕적 행동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통합적 접근을 취하는 도덕과 수업의 일반적 절차는 1차시는 인지적 측면, 2차시는 정의적 측면, 3차시는 행동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즉 한 제제를 가지고 3시간의 수업을 운영하면서 인지화, 심정화, 행동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도덕과가 인지적 접근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3차시의 행동화가 교실 수업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러므로 통합적 접근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3차시의 교수·학습 활동이 도덕적 행동을 연습하거나 경험해 볼 수 있는 실연이나 실행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도덕과 수업에서 이와 같은 도덕적 경험은 역할극, 역할놀이, 연극, 가상체험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교실을 벗어나서 두 세 시간에 걸쳐 학급, 학교나 지역사회의 장을 이용하여 도덕적 행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도덕과 수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지도 방법의 개선 및 교육 내용, 교육 자료의 연구·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후 이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 도덕과 교수·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도덕과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사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도덕과 일반 수업 모형의 흐름대로 수업을 운용하는 것이 다른 교과와 수업을 하는 것보다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최소한 국어나 사회과 정도로 수업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덕과 교수·학습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시청각 문화와 토론 문화에 보다 익숙해져 있고 또한 흥미를 느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도덕과 수업도 이들의 관심과 취향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법으로 고전과 현대의 명저를 탐독하고 토론하기,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시사적인 사건 실화에 대해 토론하기, NIE 활용하기, TV 기획프로그램 감상



하고 ICT활용, 인터넷 활용하기 등을 들 수 있다. 수업시간에 교사중심의 강의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법들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교육의 성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sup>29)</sup> 그러나 어떤 매체를 사용하든지 간에 흥미있는 분위기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게하는 것도 시도해 볼만하다.

아울러 도덕과 교육에서 지향하는 인간상과 지도 요소(덕목) 및 이를 가르치기 위한 내용과 자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향하는 인간상이 추상적일수록, 가르치는 지도 요소가 많을수록,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진부할수록, 수업시간에 투입할 자료의 확보가 손쉽지 않을수록 도덕과 수업은 현장에서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 지도 요소가 많다보니 일관성 있게 반복하여 지도하는 것이 어렵고, 한 두 번 다루고 지나가는 정도로 습관이 형성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적은 수의 지도 요소를 가지고 적어도 한 학기이상 꾸준히 지도할 경우 분명하게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재교육을 위해서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실시함은 물론 교육방송, 교과교육 연구회,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비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교수·학습 지도에 대한 연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나 교육청 차원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겠다.

## 2. 타 교과와의 연계 학습

### 1) 교과통합학습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은 바른생활과·도덕 교육을 중핵으로 하지만, 교사는 이외에도 여타의 교과 교육 시간을 통하여 도덕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제6차 초등학교 교육과정기부터는 종전 주당 2시간이었던 3~6학년 대상의 도덕과 교육이 주당 1시간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도덕과 교육 시간을 줄이게 된 배경에는 바른생활과·도덕과 시간 이외의 여타 교과 교육 시간과 학교 생활 전체에 걸쳐 그리고 가정 및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도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학교 도덕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sup>30)</sup>

29) 김태훈(1999), “도덕·윤리과 지도 방법론”, 「도덕·윤리 교과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pp. 262~263.

30) 교육부(1997), 「도덕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 21~23.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교육 중에서 도덕교육과 가장 많이 관련되는 교과로는 사회과와 국어를 들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사회과는 도덕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sup>31)</sup> 그러나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수학과에서도 도덕적 요소를 담은 수학 문제를 해결하거나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문제 해결력을 육성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도덕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에서 도덕교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아주 작고 일부분에 해당되는 예만 들어보아도, 과학과에서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탐구를 하는 경우, 체육과에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협동하는 자세를 기르는 경우, 미술과에서 협동화를 그리는 경우 등 여타 교과 교육 시간에 도덕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는 풍부하다.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바른생활과·도덕과 이외의 교과 교육 시간에도 가능한 한 도덕교육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 교과를 통한 도덕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교사는 어떤 점에 유의하여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대체로 그것은 도덕과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가르칠 내용을 선정·조직한 다음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한 후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첫째, 각 교과별로 한 단원을 시작하고자 할 때 먼저 그 단원의 설정 취지와 전반적인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도덕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도덕 교육적 관점에서 지도할 여지가 있는지, 바른생활·도덕과 교육과정상의 어떤 지도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둘째, 도덕교육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선정·조직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지, 그 단원의 몇 차시에서 다룰 것인지, 다루고자 하는 그 차시에서 도덕 교육 관련 수업 목표와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여기에서 목표 설정과 내용 선정·조직은 단원 전체 수준과 구체적인 해당 수업 시간 수준 모두에서 모색될 수 있다. 목표를 세울 때에는 애매하고 막연하게 인식하기보다는 도덕적으로 무엇을 알고 느끼고 생각하고, 어떤 가치·태도를 지니게 하며 어떤 도덕적 덕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것 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다음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내용들을 지도할 것인지를 연구한다. 즉, 어떤 내용들을 어떤 순서에 의해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31) 안천(1993), 「신사고 사회과 교육론」, 교육과학사, pp.111~115

셋째, 어떤 교수-학습과정과 지도 방법, 그리고 자료를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세운다. 바른 생활과·도덕과의 일반적 수업 모형 전체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의 일부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도덕과에서 권장되고 있는 개념분석 모형, 역할놀이 모형, 경험수업 모형, 가치갈등 모형, 가치명료화 모형, 집단 탐구 모형, 콜버그의 토론 수업 모형 등을 염두에 두면서 그 중에서 어떤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수업과정을 전개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물론 위에서 든 각각의 모형들의 전체 과정이 아닌 일부분을 적용하거나 여러 모형중의 어떤 부분들을 취하여 혼합된 자기 나름의 창의적인 수업 과정을 구안해 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직접 실습을 할 것이지, 관찰이나 견학, 조사 탐구, 토론 등 어떤 교수·학습 활동을 매개로 할 것인지, 그리고 수업 전개 과정과 활동 속에서 어떤 자료를 투입할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는 평가 계획을 세운다. 평가는 위에서 설정한 목표가 얼마나 도달되었는지를 측정하여 학생들의 지속적인 도덕적 성장과 앞으로의 도덕교육 개선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관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평가는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깊이 알고 내면화하였는지, 어떤 도덕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기르게 되었는지, 배운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내용에 따라 그에 걸맞은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계획에 따라 각 교과별로 해당 수업을 전개한다. 물론 이 때 각 교과 시간에 전개되는 도덕 수업은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양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각 교과의 본질과 특성에 따르는 수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도덕교육적 지도가 부가적으로 결부되는 부수적 운영 방식이다. 예컨대, 농구를 지도하는 체육 수업시간이라면 이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은 공을 던지고 잡고 피하는 요령, 정확성과 순발력 등에 대한 지도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농구 경기의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자기 맡은 책임을 다하는 자세, 서로 협동하면서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자세 등이 수업 전체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지도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해당 교과의 수업 시간 중에 일정 시간을 완전히 도덕 시간으로 운영하는 독립적 운영방식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국어 수업 시간에 윤봉길에 관한 한 단원을 총 6시간으로 할 경우 그 중 1시간 내지 1시간 수업 중 일정 시간을 윤봉길의 훌륭한 점에 대

해 생각하면서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민족애를 배우는 시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완전히 도덕 교육적 요소만을 다루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위 세 번째에서 지적인 도덕교육 교수-학습 과정과 지도 방법, 자료 등에 관한 논의는 바로 이러한 독립된 도덕교육 시간의 운영을 염두에 두고 설명한 것이다.

이와 같이 수업을 전개한 후 평가는 이미 각 교과를 통한 도덕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설정된 목표와 평가 계획에 따라 실행한다.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 그 평가 결과를 학생들의 지속적인 도덕적 성장과 교사의 교수-학습 개선에 피드백 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각 교과에서 지도된 내용과 그 결과를 바른생활과와 도덕과 시간에 연결하여 다시 지도함으로써 교과 통합과 가치 통합을 도모하는 가운데 도덕교육이 반복적, 누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sup>32)</sup>

## 2) 범 교과 학습

범 교과 학습은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해 도덕과의 주요 가치·덕목과 연계된 영역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발표·토의 활동과 관찰·조사·수집·노작·견학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범 교과 학습은 재량 활동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되, 관련되는 교과와 특별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가정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프로그램 편성은 학교와 교사,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편성하되,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육 내용을 다양화하고 특색 있게 편성한다. 재량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활동 내용은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안전 교육, 통일 교육, 국제 이해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등이 있다. 범 교과 학습에서 인성 교육 지도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32) 이택휘·유병열(2001), 전게서, pp. 296~299.

	중영역	제 재(예시)
기본 생활 습관 교육	바른 몸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른 자세 바르게 하기</li> <li>· 몸을 깨끗이 하기</li> <li>· 인사하기</li> <li>· 바른 말 고운 말 사용하기</li> <li>· 옷 바르게 입기</li> </ul>
	정리 정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 두기</li> <li>· 자신의 주변 청소하기</li> <li>· 학습 준비물 잘 챙기기</li> <li>· 자신의 주변 정리 정돈하기</li> </ul>
	학교 생활에서 지킬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례 지키기</li> <li>· 학급·학교 물건 올바르게 사용하기</li> <li>· 화장실 깨끗이 사용하기</li> <li>· 수돗물 아껴 쓰기</li> <li>· 올바르게 보행하기</li> <li>· 식사 예절 지키기</li> </ul>
경로 효친 교육	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 일손 돕기</li> <li>· 형제간에 사이 좋게 지내기</li> <li>·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갖기</li> <li>· 성묘 체험하기</li> </ul>
	선생님에 대한 예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생님께 인사하기</li> <li>· 수업시 바른 태도 갖기</li> <li>·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 갖기</li> </ul>
	웃어른에 대한 예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웃어른께 인사하기</li> <li>· 웃어른 일손 돕기</li> <li>· 웃어른께 자리 양보하기</li> </ul>
협동생활	함께 체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우들과 함께 하기(청소, 봉사활동 등)</li> <li>· 학급 환경 함께 꾸미기(벽신문, 작품게시 등)</li> <li>· 가족 신문 힘께 만들기</li> <li>· 함께하는 생활(자율축구, 민속놀이 등)</li> </ul>
	더불어 사는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우 학우 돕기</li> <li>· 사회복지시설 돕기(양로원, 고아원)</li> <li>·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li> </ul>

예를들어 민주 시민 교육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 영역에서는 ‘사이 좋은 우리들’, ‘바른 자세로 해봐요’, ‘우리 부모님’ ‘소중한 사람들’, ‘정직한 어린이가 될래요’, ‘나의 잘못된 습관’ ‘경로당을 찾아서’, ‘우리 가족 만세’ 등과, 공공질서 영역에서는 ‘학교 생활’, ‘교외 생활’, ‘질서는 편하고 아름다운 것’ ‘도서관에 가봅시다’ 등과, 민주사회에서의 절차 영역에서는 ‘제주도 의회를 찾아서’, ‘학급어린이회 구성 및 조직’, ‘학급어린이회’ 등과, 합리적 의사결정 영역

에서는 ‘나는 이런 친구를 뽑겠어요’, ‘마을회의’, ‘나의 선택 우리의 선택’ 등의 주제로 운영할 수 있다.

### 3. 체험을 중시하는 교수·학습 활동

#### 1) 체험학습 계획의 수립과 활용

도덕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도덕적인 행동실천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교실수업만으로는 그 학습성파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실수업→도덕실수업(예절실수업)→교외활동 및 학부모협조’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인성교육의 진정한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종합적인 지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체험학습을 통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며, 호연지기 및 극기심을 배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자질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생생한 산 교육이 되도록 현장을 답사하며, 조사, 관찰, 노작 등의 다양한 체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각 교과와 관련된 내용이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과, 재량 활동, 특별활동 전 영역에서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sup>33)</sup>

다양하고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체험학습을 실시한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활용한다.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체험 활동을 위한 운영 계획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33) 정세구(2000), “초·중등 도덕·윤리과 교육 반세기의 회고 및 반성과 21세기 초의 과제” 「도덕윤리과교육 제12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p. 37.

월	주	이수 시수	활 동 주 제	장 소	관 련 교 과		
					교 과	단 원	지 도 내 용
3	2	3	나는 나는 자라서	교실	국어 즐거운생활	1. 꿈을 펼쳐요 7. 우리들 세상	· 2학년이 되어 하고 싶은일 쓰고 발표하기 · 자라서 하고 싶은 일 그리기
4	1	2	안전하게 지내요	운동장 일주도로 로변	슬기로운 생활 바른생활 즐거운생활	3. 더불어 사는 우리 이웃 7. 정다운 이웃 11. 신나는 물놀이	· 학교시설의 바른 사용법 알기 · 신호등이 있는 횡단 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 여러 가지 안전생활 알고 지키기
5	2	2	고마우신 부모님	교실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생활	6. 즐거운 우리 집 2. 살기 좋은 우리 집 5. 이만큼 자랐어요.	· 가족과 즐겁고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 알기 ·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 부모님께 꽃 만들어 달아드리기
6	4	2	우리 고장의 바닷가와 해양 오염	마을 해변	바른생활 즐거운생활	8. 보람있는 여름 방학 11. 신나는 물놀이	· 우리 마을 바닷가 관찰 및 오염 실태 파악 · 자연 보호 활동 및 바다 지킴이 될 것을 다짐하기 · 오가는 길에 안전에조심 하기
7	1	4	즐거운 여름	유스호 스텔 수영장	바른생활 즐거운생활	8. 보람있는 여름 방학 11. 신나는 물놀이	· 안전한 물놀이 방법 알기 · 안전에 조심하며 물놀이하기
	3	4	1학기를 마치며	교실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3. 스스로 하는 어린이 5. 알찬 하루 보람찬 생활	· 1학기를 보람차게 보냈는지 반성하기 · 여름방학 계획 세우기

## 2) 재량활동 시간의 활용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제도의 운용과 교육 내용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무엇보다도 개성 있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대비하여 재량 활동은 학습자와 지역사회의 요구, 학교의 상황과 학교장

및 교사의 교육관에 따라 학교 나름대로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교육 과정 결정 및 운영의 자율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은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재량활동 시간은 도덕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실천과 활동, 적극적인 참여와 체험 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재량 활동 시간은 주당 2시간(1학년은 3월 '우리들은 1학년'시간)으로 편성되어 이중 1시간은 2001학년도는 1~2학년, 2002학년도는 3~4학년, 2003년도에는 5~6학년에서 정보 통신 기술 교육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 통신 기술 교육을 줄이고 주요 가치와 덕목을 실천하는 도덕 교육 시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 기본 방향을 학생들의 개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및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기본 예절, 질서, 절제, 준법, 공중 도덕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몸에 배게 하는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등으로 활동 주제를 구성하여 주제 탐구 활동, 소집단 공동 연구 체험 학습 등 다양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재량 활동시간에서 영역별 지도에는 학년간의 계열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3) 특별활동 시간의 활용

특별활동은 교과활동과는 달리 학생과 교사가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장소, 시간, 방법에 구애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및 학교의 특성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서 그 편성과 운영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단위 학교의 특별활동은 학교 급별에 따라 다르고, 하위 영역의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각기 다르게 편성하고 운영하게 된다.

특별활동 편성 운영의 기본 방향은 특별활동의 5대 영역인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이 균형 있게 운영하는 가운데 다양한 체험과 실천을 통한 바른 도덕성을 형성시킬 수 있게 된다.

자치활동 영역에서는 학급, 학교의 생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과 선정과 운영을 통한 협의활동, 각종 부서, 위원회활동을 통한 역할 분담 활동, 학급, 학교 생활 개선을 통한 민주 시민 활동을 통하여 민주 사회에서의 절차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적용활동 영역에서는 예절, 준법, 질서, 절제, 청결, 정리정돈, 근검 절약 자립 등 기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실생활 체험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 제공과 기본 생활 습관형성을 통한 친교활동, 학생과 교사간의 신뢰 형성, 부모와 학교간에 긴밀한 협조를 위한 상담 활동,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관한 인식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의 탐색,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및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진로활동, 정체성확립, 인간 관계의 기본 적인 태도 형성,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고, 원만한 인간 관계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 위한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다.

계발활동 영역에서는 취미에 맞는 다양한 부서를 조직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창의성, 협동심, 질서 의식 등을 고양하고 실천할 수 있다.

봉사활동 영역에서는 일손돕기활동,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 위문활동, 불우이웃돕기를 통한 자선구호 활동, 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보호, 문화재 활동을 통한 환경·시설 보전 활동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활동 영역에서는 바른 자세로 의식 참가, 학예 활동에 즐겨 참여하기, 건전한 생활 습관 기르기를 통한 보건 체육행사활동, 자연보호 및 질서 기르기, 인내심 기르기를 통한 수련활동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실천할 수 있다. 또한 교통 사고 예방, 불조심하기를 통한 안전 구호활동과 장애인 돌보기 자매 학교에 편지 쓰기 등의 교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4) 도덕실(예절실) 운영 계획의 수립과 활용

정규 수업시간에 일반교실에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도덕실 또는 예절실 등의 특별교실을 마련한 후, 시청각 기재, ICT활용, NIE 자료 등을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도덕과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교실에서 소규모 토론을 하고, TV 기획프로그램과 같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며, ICT활용 교육을 실시하며, 최근의 신문 자료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sup>34)</sup>

오늘날 우리 사회의 바른 예절은 우리 민족의 전통 예절이 바탕이 되었음을 알게 하고 이를 직접 체득케 하여 생활 예절을 습관화하는데 있다. 예절 교육은 효·경 의식을 보다

---

34) 김태훈(1999), 전계서, pp. 262~263.

깊게 내면화 할 수 있으며, 우리 조상들의 전통 윤리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절실의 환경은 우리의 전통이 숨쉬는 듯한 분위기를 살려 꾸미며, 병풍, 돛자리, 차례상 꾸미기, 남녀 한복 등이 마련되고, 영상 교육 자료 등도 마련한다. 초등학교는 담임교사가 지도하지만 지역인사, 학부모 등 1일 교사를 초빙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예절 교육 연간 지도 계획 작성·활용

예절 교육 연간 지도 계획을 세워 연중 활용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월	덕목	학습주제	지도내용	지도자료
3	예절	예절실 이용 방법과 바른 몸가짐	· 예절실 이용 방법 · 예절실의 입·출입 자세 · 바른 몸가짐	· 예절 교육 지도 자료 · VTR자료
4	예절	바른 인사법	· 알맞은 인사말 · 바른 인사 예절	· 예절 교육 지도 자료
5	예절	바른 자세	· 어른 앞에서의 몸가짐 · 앉는 자세 · 걸음 걸이	· 예절 교육 지도 자료 · VTR자료
6	예절	식사 예절	· 기본 식사 예절 · 바른 젓가락질 · 상차림 · 한복 식사 예절	· 예절 교육 지도 자료 · VTR자료 · 차림상
7	효경	친척 계보와 호칭 제례 예절	· 친척간의 계보 · 친척간의 호칭 · 제례 예절	· 예절 교육 지도 자료 · 제사상
9	예절	손님 접대와 다도	· 손님에 대한 예절 · 간단한 음식, 차 대접하기 · 다도, 기본자세, 다법 익히기	· VTR자료 · 다도구
10	예절	함께하는 이웃	· 공동 생활에서의 예절 · 이웃간의 호칭 · 이웃 어른에 대한 예절	· VTR자료
11	효행	부모님 감사합니다	· 학부모 1일 교사 초빙 · 부모님의 고충 알기 · 부모님의 바램 듣기	· 자성록
12	예절	생활 예절	· 경례의 종류와 방법 · 악수할 때의 예절 · 출입할 때의 예절	· 예절 교육 지도 자료 · VTR자료
2	효행 예절	효도와 예절 실천	· 부모님 모시기 · 한복 입는 법 · 공수 자세 · 큰 절하기	· 예절 교육 지도 자료 · 한복

(2) 지도 내용에 따른 예절 교육 과정안 작성·활용

예절 교육 연간 지도 계획 에 따른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여 항상 비치하고 활용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활동목표	· 앉은 자세에서의 여러 가지 인사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덕목	기본예절
활동주제	· 앉은 자세에서의 여러 가지 인사법		자료번호	3
활동과정	활동요소	활동내용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계획수립	· 분위기 조성	○ 노래 부르며 신체 표현하기 ○ 인사하는 방법 이야기하기 ○ 활동 주제 및 활동 순서 알아보기 · 활동 주제 알기 · 활동 계획 세우기	10'	VTR 녹음기
활동	· 여러 가지 인사법 알기 · 과정별 활동하기	○ 여러 가지 인사법 알아보기 · 공수의 의미와 자세 알아보기 · 앉은 자세에서의 인사법 ○ 앉은 자세에서의 인사 · 남자 평절      · 남자의 큰절 · 여자의 평절      · 여자의 큰절 ○ 절할 때의 유의점 ○ 세배할 때의 유의점	20'	VTR
토의	· 활동소감 및 반성	○ 소감 이야기하기(잘된 점, 잘못된 점) ○ 평소 잘 실천하고 있는 것 이야기하기 ○ 평소 실천하기 어려운 것 이야기하기 · 어려운 이유는 · 좋은 실천 방법	5'	솔직한 대답이 되도록 격려한다.
심화 발전	· 실천 의지 다지기	○ 이 시간에 새롭게 알게 된 것 이야기 하기 ○ 실천 다짐하기	5'	실천목표 세우기

#### 4. 학교의 도덕 공동체화

##### 1) 학급활동

교사는 학급을 도덕공동체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실생활의 분위기와 풍토, 교육적 활동 등을 민주적이고 도덕적으로 운영한다.<sup>35)</sup>

학급의 규칙을 스스로 제정하여 지키게 하는 일,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긍지를

갖게 하는 일,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과업을 성취하도록 하는 일, 협동학습 전개, 학급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공정하게 해결하는 일, 역할 분담하기, 봉사활동의 실천 등이다.

학급을 도덕공동체로 만들어 운영하는 실제의 사례들이 많이 있다.

학급명을 인성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협의하여 꽃 이름으로 정하여 1년 동안 그 꽃이 상징하는 의미를 닮아 가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학급에서 질서 지키기를 위하여 우리들의 약속을 학생들과 협의하여 만들어 실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실내에서는 소곤소곤, 다닐 때는 사뿐 사뿐, 발표는 자신 있게, 물건은 제자리에, 놀 때는 신나게’와 같이 것들이다.

반가를 작사 작곡하여 학급대항, 각종행사시에 부르게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

1주일에 1번 친구와 선생님께 편지를 주고받기, 국내·외 존경하는 위인을 찾아서 그 위인전을 읽고 좋아하는 이유 및 본받을 점을 발표해 보도록 하기. 학생들의 인내심이 부족하여 학급내에서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생기고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여 개별 및 조별 사랑의 상담 시간을 운영하기, 우리 가족 음악회, 가족 신문 만들기, 가족 독서 토론회, 가족과의 대화 시간 운영, 우리 가족 사랑 만화로 그리기, 학생들의 바른 행동 강화를 위한 스티커 부착, 인성 중심 담임 시상제 운영, 구성원 모두가 명랑하고 활기차며,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민속놀이 실시, 신나는 토의학습 전개, 요일별 인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침 시간 운영(월-이야기하며 느끼며, 화-노래하며 즐기며, 수-마음 열어 상담하며, 목-도와주며 배우며, 금-즐거운 놀이하기, 토-내 친구 사랑하기), 사랑의 일기 쓰기, 다른 아이를 괴롭히지 않도록 상담하거나, 쪽지 상담하기 등이다.

다음은 ‘내 친구 자랑 발표하기’라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예시한 것이다.

(1) 주제 및 운영의 필요성

주 제	자랑스런 내 친구
운영의 필요성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나’만을 앞세우는 이기심이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반성하고 또 다른 ‘나’인 ‘너’를 인정해 주고 존중하는 태도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 하는 감정이입 훈련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랑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한다.

35) 이택휘·유병열(2001), 전계서, p. 301.

(2). 세부 추진 계획

세 부 추 진 내 용	목 표	시 기	대 상	비 고
· 학급별 내 친구 훌륭한점 발표하기	34회	연중 (매주 토요일)	전교생	매주 1회
· 학급별 발표 우수 어린이 심사하기	10회	매월 마지막 주	"	
· 학급별 발표 우수 어린이 시상하기	"	"	"	
· 특별 선행 사례 발표	"	7, 2월	"	
· 발표 대상 아동 선정에 따른 관점 지도	34회	연중 (매주 토요일)	"	매주 1회
· '내 친구 자랑' 글 모음집 발간	1회	2003. 2	표창학생	

(3) 기대되는 성과로는 친구의 훌륭한 점을 찾아 칭찬해 주고 사랑하며,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함으로써 나 또한 친구의 사랑을 받으며, 급우들간의 신뢰를 얻어 긍지를 갖고 생활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학급별 특색에 알맞게 주간 학습을 안내할 때 요일별 인성 지도 계획을 세워 틈새 인성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교사가 이렇게 학급을 도덕공동체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학생 하나 하나가 그 학급의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 자긍심을 갖는 동시에 학급 내에서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서로의 가치와 인격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서로 돕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품성을 지니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남을 괴롭히는 아이, 오락실을 집이나 학교 보다 더 좋아하는 아이,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는 아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 가장인 아이, 계모나 계부와 생활하는 아이, 가정이 어려운 아이, 도벽이 심한 아이, 편모나 편부 밑에서 살면서 애정 결핍과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찬 아이들이 건전한 인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학급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도덕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학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성 덕목 실천에 대한 설문조사, 학부모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학급 집단의 인성 경향을 파악하여, 학급 특성에 맞는 1학급 1주제를 선정하고 학급별로 3~5개의 중점 실천덕목을 설정하는데 저학년(1~2학년)은 기본 생활 습관 영역, 중학년(3~4학년)은 효도, 경애, 자아확립의 영역을, 고학년(5~6학년)에서는 공동체 의식 영역의 덕목을 중점으로 지도한다.

학급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은 교과학습 시간 활용, 가정과 연계한 활동, 특별활동 시간 활용, 주말 과제형, 재량 활동 시간 활용, 개별 수행형, 방과후 시간 활용, 집단 수행형 등으로 분류하여 운영한다. 또한 학급 중점 덕목을 구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체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교과 활동, 학급 활동, 재량 활동 시간, 특별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 형태로 과제를 체험하도록 한다. 과제 실천이 끝나면 담임 교사는 실천 후의 소감이나 효과,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차후 프로그램 활용에 참고가 되게 하며, 과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례, 일기, 보고서, 스크랩, 편지 글, 평가표 등의 학습 결과물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정리한다.

바른 생활과와 도덕과의 주요 가치·덕목 중에서 학년, 학급의 실태를 파악하여 1학급 1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알맞은 덕목 3~5개를 선정하여, 덕목별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침 자율학습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교과 시간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1학급 1주제 선정하고 실천을 위한 운영 계획과 실천과제 및 지도과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제 및 운영의 필요성

주 제	사랑 가득 효심 가득 고운 마음으로 꽃피워요	가치·덕목	효도·경애
운영의 필요성	우리 반 학생들은 부모님의 절반 정도가 맞벌이로서 저녁이 되어서야 부모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며, 대체로 명랑하고 활발하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과잉보호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효성과 경애심이 부족한 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마음 속에 사랑과 효심을 꽃피우고자한다.		

(2) 운영 계획

프로그램명	활 동 내 용	일 시	비 고
· 마음의 거울 비춰보기	· 효행 일기 쓰기 · 사랑의 일기 쓰기	· 매주 토요일 · "	· 매주 1회 칭찬과 격려로 지도조언 · 우수 일기를 게시
· 사랑과 효심을 글 속에 담아요	· 동시 쓰기(효도·경애) · 생활문 쓰기(효도·경애)	· 월 1회 · 아침 자율학습시간	· 효도·경애를 주제로 글을 써서 모으기
· 책 속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 책을 읽고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 독서 감상문 쓰기 · 독서 발표회 갖기	· 연중 · 월 1회 · "	· 주제에 맞는 책을 읽 고 감상문 쓰기 · 모둠별 독서 발표회 갖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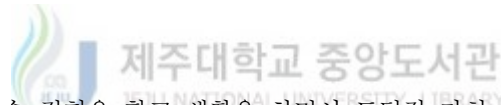
(3) 실천과제

프로그램명	· 책 속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일시	3월 3주	덕목	효도·경애	실천형태	· 아침자율 학습시간 방과 후
준비물	· 모둠별 선정 도서, · 독서 감상문, · 소품				
목적	· 책을 읽고 주인공이 되어 자기를 표현해 봄으로써 주인공의 훌륭한 점을 본 받게 한다.				

(4) 지도과정

요일별로 지도과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월요일에는 3학년 필독도서 중에서 효도·경애와 관련된 책을 모둠별로 1권씩 정한다.(한국전래동화집, 효자 이야기, 효자도 손발이 맞아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모둠별로 정한 책을 집에서 읽고 독후감을 쓴다. 목요일에는 독서발표회를 열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이야기 하고, 모둠별 독후감 표현 방법을 정한다(역할극, 협동화 그리기, 편지 쓰기, 동시 짓기, 만화 그리기). 금요일에는 모둠별로 독후감 표현활동을 하고 우수 활동 모듬을 칭찬한다.

2) 학교 생활



학생들의 도덕적 학습 경험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도덕적 가치 규범을 몸에 베이게 하는데 있다.

학교를 도덕공동체로 만드는 일과 관련하여 도덕적 생활 환경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학교의 도덕교육이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 져야한다. 예컨대 한 학급에서 ‘복도에 서 조용히’하기를 규칙으로 정하여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학급에서는 복도에 뛰고 떠든다면 이를 실천하려던 학급은 실천의욕이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 수준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sup>36)</sup>

‘차레 지키기’를 학교에서 중요한 실천 덕목으로 정하였다면 도덕과 수업에서는 물론 학교의 수돗가, 화장실, 운동시설을 이용할 때 등 학교 안에서와 학교 밖에서 차를 탈 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때 이를 지키는 일 등이 서로 연계되고 통합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풍토 등이 도덕교육에 알맞도록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36) 상계서, pp. 304~305.

다.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운영하는 일, 교직원들이 학생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고 실천하는 일, 그리고 도덕적 가치 규범과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는 일이 중요하다.

예컨대, 예절생활의 습관화를 위하여 ‘바른 생활 예절본’을 제작하여 교과 학습지도 및 특별활동 시간, 일상 생활에 활용하는 일, 학생들이 기본 생활 습관과 덕목별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 1회 교내 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명상의 시간을 운영하는 일,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교실 환경을 구성하는 일, 다양한 인성 시상제 운영을 위해 칭찬과 격려로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하고 성적·서열 위주의 시상을 지양하여 개성 신장과 바른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 여러 줄 시상제를 운영한다.(교과학습, 인성, 자연 보호 활동, 야영 수련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불우 이웃 돕기, 가족 신문 만들기, 각종 체육 행사, 독서 우수자, 일기 쓰기, 착한 생활 기록, 특기, 창의적 활동, 봉사활동, 수행평가 결과, 체험활동 결과 등으로 시상 분야를 확대하고, 결과 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시상제로 전환하여 친구들과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해 시상한다.)

학교 특색 기르기도 ‘가정과 더불어 서로 양보하고 칭찬하며 감사하는 마음 가꾸기’, ‘독서 지도를 통한 바른 인성 기르기’ 등과 같이, 인성과 관련 된 내용으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일이다.

청소년 단체 및 야영 수련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위해 합동 선서식, 야영 수련활동, 국토 순례, 자전거 하이킹 등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강인한 심성과 호연지기의 기상을 함양하며, 봉사·협동·질서 등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육성하며, 부모님과 함께하는 야영수련, 경로 효친 주간 운영, 일기 쓰기, 인성지도 예화 자료 구안·활용을 통한 자기의 하루의 생활 반성과 각종 학교 행사시에 교가를 부르며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체육대회도 마을 축제로 승화 시켜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 지역사회인과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 잔치로 승화 시켜야 한다.

## 5.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와의 연계교육 활성화

도덕과를 통한 도덕적 가치 규범에 대한 지도가 학급 및 학교 생활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지도와 연계, 확대되면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통합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도덕과 교육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주요 지도 요소, 즉 교육과정에서 선정한 도덕적 가치·덕목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들 가치 규범을 다루는 시간은 주당 1~2시간에 그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도덕 가치 규범에 대한 보다 태도나 생활 자세가 정착되려면 이들 가치 규범을 접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도덕과 시간에 협동에 대해 지도하였다면 국어, 사회, 실과, 체육 등 여타 교과 교육 시간과 특별활동, 재량 시간에 그리고 학급 및 학교의 생활 장면에서 심화·반복지도가 지속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도덕과 교육의 시·공적 제약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도덕성을 심화·발전시킬 수가 있다.

한편 학생들이 도덕 수업 시간에 배운 도덕 가치 규범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체득하는 장으로서 학교 이외에 가정과 지역사회가 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 이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도덕 교육은 필수적으로 추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에서 예절을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을 경우 예절교육의 내용을 가정 및 지역사회에 알리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내면화·태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학교·학부모·지역사회 사이에 학생의 학습 및 발달에 관한 공유된 목적과 사명이 결여되어 있는 곳에서는 도덕교육이 결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학교는 가정 및 지역사회를 학교의 도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가정과 지역사회를 학교의 도덕교육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1) 가정과 연계교육

가정은 도덕적 인격인을 기르는 제일차적인 기관이다. 도덕적 인격인은 어린 시절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상호작용 관계, 가정생활의 양식이나 환경 풍토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더구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활은 대부분 학교와 가정에서의 생활이다.

그런데 가정의 도덕적 환경은 그리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 자녀 학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무시, 폭언, 공정치 못한 대우, 이혼으로 인한 부모 사랑의 실종, 계모·계부의 차별적인 대우, 권위주의적 인간관계, 극한적으로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sup>37)</sup>

또한 학교에서는 도덕적 가치 규범을 가르치는데 가정에서는 이와 역행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와 함께 무단횡단하기,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차례로 줄서지 않고 끼어 들기, 자녀 앞에서 남몰래 물건을 훔친다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언행 등이다.

가정의 부모와 가족 구성원들이 먼저 도덕적 삶의 모습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생활을 직접 실천하면서 몸에 익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관찰 학습과 자기강화의 효과, 모델링과 동일시 현상 등은 이러한 점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는 학교가 하고자하는 도덕교육의 의의와 방향에 대해 학부모들이 이해하고 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겠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공동의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가정과 협력하는 방안으로 학부모회 조직의 강화, 어머니회 활성화, 학급 학부모회 조직 운영,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조직 운영 등의 단체는 물론 개별적인 학부모와 상담, 가정통신문 발송, 각종 행사시 학부모 참여 등으로 도덕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학교에서의 도덕교육 내용을 확대·지원·보강해 줄 수 있는 가정에서의 도덕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학부모들에게 보급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학생이 도덕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학교 행사들에 학부모 및 지역사회를 관여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 모습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교육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월 1회 ‘학부모 초청 학교 공개의 날’을 운영하고 학부모와 상담의 기회를 갖으며, 부모와 자녀 온 가족이 함께 가족 신문을 제작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의식, 자기 가족에 대한 자긍심 및 협동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우수한 가족 신문을 선정하여 학교장이 시상하고 우수 가족신문 모음집을 만들어 전시하여 학생들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게 하며, 부모님 형제 자매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족 사랑을 실천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개인별로 보관하여 추억을 간직하도록 한다. 이는 가족간에 사랑과 관심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따뜻한 인성을 기르는데 있다.

특히 편지 쓰기는 효경의 날과 효경 주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연중 수시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편지글은 학교 신문, 학교 문집 및 효경 사례 발표에서 발표한다.

학교 생활본이나 ‘나의 생활 카드’를 실천한 내용을 부모님과 함께 평가하는 시간도 갖도

---

37) 상계서, p. 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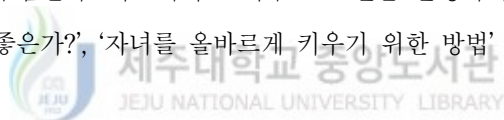
록 하며, 가족사랑 발표회, 가훈 전시회, 가족소개활동, 가족이해활동, 가족교류활동(노래 부르기, 함께(TV보기), 문제해결활동(내가 듣고 싶은 말, 역할 분담, 가족규칙 만들기, 가족회의), 가족놀이 등의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족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사랑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밖에 노작활동, 봉사활동, 여행 및 견학활동, 학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첫째, 노작활동으로 우리 집 대청소하기, 부모님 일손 돕기, 우리 집 꽃가꾸기 등이 있다.

둘째, 봉사활동으로 집 주변·골목길 청소하기, 고아원 양로원 방문하기, 불우 이웃 돕기, 이웃 일손 돕기 등이 있다.

셋째, 여행 및 견학활동으로 부모나 가족이 함께 고적 답사, 위인·선열의 유적지 답사, 부모님 직장 견학하기 등을 실시한다.

넷째, 학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인성·소질·적성을 조기에 파악하기 바르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아이 이렇게 교육시켜 주십시오’를 작성하여 학부모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한다. 학교에서는 학부모 교실을 운영하거나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자녀교육 이대로 좋은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방법’ 등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 2)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도덕교육

도덕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공식적 교육과정에 의한 의도적인 도덕교육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실 교실에서의 도덕교육은 핵심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성과에는 한계가 있다. 도덕교육에 관한 여러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우리의 관심의 범위가 교실과 학교를 넘어 학생들의 삶의 현장 자체를 고려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은 의식적인 존재이지만 그 의식은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학생들을 진정 유덕한 인격인으로 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의 도덕 교육적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차를 타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다 손해만 본 경험을 한 학생들에게 여전히 차례를 기다리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학생들의 환경이 비도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이 홀로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다. 따라서 도덕적 인간을 기르려고 한다면 먼저 사회의 도덕적 환

경을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이 놓여 있는 사회적 환경을 보면 그것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점을 쉽게 알게 된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연일 계속되는 부정과 비리 사건 보도, 불법과 무질서, 어린이를 유괴하는 등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각종 음란행위, 정보 통신을 이용한 각종 비윤리적인 형태, 향락과 사치, 비도덕적인 언행, 각종 저질의 대중 문화 등의 비도덕적 형태들은 그대로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sup>38)</sup>

학교는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에 해로움을 주는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려는 실질적인 노력도 경주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진정 학생들을 도덕적 인격인으로 자라나도록 하려면 학교는 사회의 도덕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과 관련하여 모종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도덕교육을 전개하려면 학교가 지역사회의 학부모나 주요 인사들 또는 기관들(종교단체, 공공기관, 대중매체, 주요단체 등)과 협의하여 중시해야 할 공동체적 가치 규범을 설정하고 이를 강조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그러한 가치 규범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실례로 봉사단체, 학교 녹색 어머니, 공공기관, 경찰서에서 함께 교통질서 가두 캠페인을 벌이는 경우나 교통안전 지도,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보건소의 주요 교육활동, 방송 매체의 보도, 공공 장소에서 금연 구역 설치 및 안내 스티커 부착과 안내 방송, 학교에서 교육 등이다.

다음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방안도 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봉사활동, 적십자사와 공동으로 헌혈활동, 자선 구호 활동에 참여하거나 캠페인을 전개하는 일, 공공 질서 지키기 등이다. 또한 폭력 없는 학교·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동창회, 경찰서가 함께 전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에 학생이 참여하는 방안도 인격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 될 수 있다. 교육환경, 교통, 청소년 문제, 환경문제 등에 논의와 결정 고정에 참여시켜 도덕적 삶의 정신과 품성을 기르는 일이다.

---

38) 상계서, pp, 311~312.

## V. 결 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학교 교육은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다운 삶을 위한 도덕교육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펼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도덕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도덕교육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도덕적 삶에 필요한 가치 규범을 내면화하고 인간의 행동변화를 위한 실천적 도덕교육 전략들이 필요하다. 도덕적 지식 및 합리적 판단력이라는 인지적 기반과 함께 행동의 습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도덕교과 교육은 일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초등학교의 도덕과 교육이 효율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바람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도덕과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바람직한 도덕교과의 운영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현행 도덕과 교육의 실태 분석과 제시된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덕과 교육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확고하게 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왜 도덕교육을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별도의 독립된 교과인 도덕과를 설정하여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도덕교육을 하나의 교과교육의 형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도덕과 교육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정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도덕교육일반의 접근방식과는 달리 교육과정의 다른 영역이나 일상생활사태 등에서는 수행되기가 어려운 이상화된 형태의 도덕교육활동을 도덕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 생활과·도덕과 교육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면 누구나 이를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교육적 권리·의무가 주어지는 그러한 교육 활동으로서의 의의를 갖는 것이다. 동시에 공식적 교육과정에 근거한 도덕과 교육은 최소한의 중핵적인 도덕교육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제7차 교육 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덕과가 가장 강조하는 목표는 세계화 시대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생활을 습관화하며, 도덕규범을 익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에서 이를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사회에서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올바른 시민 의식과 국가·민족 의식,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의식과 태도를 함양'한다. 이와 같은 바람직한 도덕적 성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상을 세우고, 그것을 합당한 원리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 요구된다

내용 체계를 학년별로 보면, 3학년과 4학년에서는 개인과 그 주변인 가정, 이웃 및 학교 생활을 다른 생활 영역보다 더 많이 다루었고, 5학년과 6학년에서는 사회, 국가 및 민족 생활 영역을 더 많이 다루고 있다.

교육 과정의 조직은 학년간의 연계성과 체계성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초등 학교 1학년에 서부터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의 적용을 받는 10학년까지의 계열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였으며, 3~6 학년도 이러한 맥락에서 내용 선정을 하였다.

통합적 접근을 반영하여 제7차 도덕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체제로 구성되었다. 곧 한 제재가 3차시로 구성되며, 각각의 차시에는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 감정적 측면 그리고 행동적 측면이 중심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각 제재마다 3차시의 수업은 학생들이 도덕 규범을 이해하고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고 있으나 제시된 행동 실천을 가능한 직접 교실에서나 다른 장소에서 체험해 보도록 재구성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덕과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수업의 일반적 절차는 1차시는 인지적 측면 중심, 2차시는 정의적 측면 중심의 수업, 3차시는 행동적 측면의 수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행동적 측면의 수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3차시 수업에서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실효성 있게 제공되어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동적 측면에 중점을 둔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최근에 도덕과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덕목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크게 보아 인성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의 도덕교과 교육은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는 도덕 교과 폐지론 혹은 축소론과 같은 주장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학교 도덕교과 교육의 성격 혹은 과제를 분명히 하라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인성 교육’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요구가 이제 도덕과 교육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 같다.

초등학교 도덕과의 현재 실태를 살펴보면, 명목상의 중요성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소위 주요 교과 혹은 주지 교과들과는 비교도 안되게 주변적인 위치로 밀려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당 1시간이라는 시간 배당도 그렇고, 학교 행사 등으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교과도 바로 도덕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학교 교사들의 도덕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 문제이다. 교사들은 도덕과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며, 실제로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생 생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도덕적 문제들이 무엇인가,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이 무엇인가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아 도덕과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덕과 교육의 교과내용과 방향, 학생의 의식과 실천 영역에서의 문제점으로는 타 교과와의 연계지도가 잘 안되고 있으며, 교과 통합적인 측면에서 도덕과의 가치·덕목에 따른 주제와 관련하여 연계되어 지도되고 있지 않고 있다. 체험중심 계획이 학교별로 교육과정에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도덕과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짜여 있지 않았고 교수·학습과정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학교가 도덕 공동체화를 위하여 도덕적 가치 규범을 몸에 베이게 하기 위한 도덕적 생활 환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노력도 부족하며,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교육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지도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 학생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현실 만족주의, 부정적 사회관, 황금 만능주의 등에 물들어 있어 더불어 사는 삶의 자세 측면에서 적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대체로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싫어하고, 국가나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보다는 나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즐겁게 살고자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의 언어능력과 사고능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지만, 사회적 능력, 정의적(정서적) 특성 능력은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이다.

학교에서 교과를 통한 도덕교육은 바른 생활·도덕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의 주된 활동이 교과교육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바른 생활과와 도덕과 교육은 학교 도덕교육의 핵심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교 도덕교육을 제대로 운영하고 기대되는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바른 생활과와 도덕과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21세기 학교 교육에서는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가치 기반의 형성과 문화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이 요구된다. 초등학교 도덕과는 바로 이러한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가치 기반을 형성하는 거점 교과로서 굳건하게 정착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도덕과의 교육과정상의 위치는 현재와 같이 정규 공통필수 교과의 위치를 유지하고, 배당 시간 수를 확대하도록 한다. 그리고 앞장에서 살펴본 인성 교육과 생활적응 교육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과의 성격 및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변화시키도록 한다.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은 바른 생활과·도덕 교육을 중핵으로 하지만, 교사는 이외에도 여타의 교과 교육 시간을 통하여 도덕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범교과 학습은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해 도덕과의 주요 가치·덕목과 연계된 영역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발표·토의 활동과 관찰·조사·수집·노작·견학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도덕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도덕적인 행동실천이라고 한다면, 각 교과와 관련된 내용이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과, 재량 활동, 특별활동 전 영역에서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재량활동 시간은 도덕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실천과 활동, 적극적인 참여와 체험 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특별활동은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이 균형 있게 운영하는 가운데 다양한 체험과 실천을 통한 바른 도덕성을 형성시킬 수 있게 된다.

도덕과 교육 기법들을 내용에 따라 전문화·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도덕과 지도 시간에 교사중심의 강의보다는 도덕실 또는 예절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학급을 도덕공동체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실생활의 분위기와 풍토, 교육적 활동 등을 민주적이고 도덕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학교를 도덕공동체로 만드는 일과 관련하여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풍토 등이 도덕교육에 알맞도록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도덕과를 통한 도덕적 가치 규범에 대한 지도가 학급 및 학교 생활 그리고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의 지도와 연계, 확대되면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통합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도덕과 교육은 교육과정에서 선정한 도덕적 가치·덕목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은 주당 1~2시간에 그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도덕 가치 규범에 대한 보다 태도나 생활 자세가 정착되려면 이들 가치 규범을 접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가정은 도덕적 인격인을 기르는 제일차적인 기관이다. 학교는 학교가 하고자하는 도덕교육의 의의와 방향에 대해 학부모들이 이해하고 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겠다. 이를 위해 도덕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에 해로움을 주는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려는 실질적인 노력도 경주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현재 초등학교 현장에서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간략히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도덕과의 교육과정상의 위치는 현재와 같이 정규 공통필수 교과 위치를 유지하고 도덕과 배당 시수를 현재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도록 하며 인성 교육과 생활 적응 교육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과 성격 및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변화시켜야겠다.

둘째, 도덕교육은 도덕과 교육을 중핵적으로 하지만 타 교과와의 연계 학습으로 학년 초 예교과별 단원별로 도덕과 관련 지도요소를 추출하여 연간 지도 계획표를 작성하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재량시간은 도덕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체험위주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겠다.

넷째, 1학년 1주제에 따른 덕목을 학급 특성에 맞게 3~5개 선정하여 연중 지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겠으며 학교마다 도덕실(예절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나 교육청의 지원이 있어야겠다.

다섯째, 가정과 연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겠다.

##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교육부(1997),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
- \_\_\_\_\_ (1998), 「초등 학교 교육 과정 해설(Ⅱ) : 우리들은 1학년,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 특별활동」
- \_\_\_\_\_ (1998), 「초등 학교 교육 과정 해설(Ⅲ) : 국어, 도덕, 사회」
- \_\_\_\_\_ (2000), 「초등 학교 교사용 지도서 바른 생활 1-2」
- \_\_\_\_\_ (2000), 「초등 학교 교사용 지도서, 바른생활 2-2」
- 교육인적자원부(2001), 「초등 학교 교사용 지도서 3-2」
- \_\_\_\_\_ (2001), 「초등 학교 교사용 지도서 4-2」
- \_\_\_\_\_ (2001), 「초등 학교 교사용 지도서 5」
- \_\_\_\_\_ (2001), 「초등 학교 교사용 지도서 6」
- 남궁달화(2000), 「도덕교육과 수행평가」, 교육과학사.
- 박용현 외(1986), 「도덕과 교육」, 한국 방송 통신 대학교.
- 박익종(1994), 「도덕과 교육론」, 형설출판사.
- 서강식(2001), 「도덕과 교육론」, 양서원.
- 손경애(1994), 「인간교육방안연구」, 현대사회연구소.
- 안천(1993), 「신사고 사회과 교육론」, 교육과학사.
- 이돈희(1995), 「도덕교육원론」, 교육과학사.
- 이택휘·유병열(1997), 「안보환경 변화와 국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 국가안전보장회의비상기획위원회.
- \_\_\_\_\_ (2001), 「도덕교육론」, 양서원
- 추병완(2001), 「도덕교육의 이해」, 도서출판 백의.
- 한국도덕과 교육학회(2001), 「도덕과 교육론」, 교육과학사.
-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1999), 「도덕·윤리 교과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_\_\_\_\_ (1999), 「도덕윤리과교육」 제10호,  
\_\_\_\_\_ (2000), 「도덕윤리과교육」 제12호,  
\_\_\_\_\_ (2001), 「도덕윤리과교육」 제13호,

<논 문>

- 강민석(1999), “도덕과 교육의 정당화 문제”, 「도덕윤리과교육」 제10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 계준섭(1999), “한국초등도덕과 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창근(2000), “초등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주 외(1997), “국민의 호국·안보의식 제고 방안: 청소년들의 한국전쟁, 통일·안보·국가 현실에 관한 의식 조사”, 한국정치외교학회 학술세미나 보고서.
- 김태훈(1999), “도덕·윤리과 지도방법론”. 「도덕·윤리 교과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 나승호(2000), “초등학생의 행동발달상황”,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한동(2001), “민주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도덕윤리과교육」 제13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 서강식(2000).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발전 방향”, 「도덕윤리과교육」 제12호, 대학사,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 서민이(2000), “인격교육에 입각한 도덕과 수업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세구(2000), “초·중등 도덕·윤리과 교육 반세기의 회고 및 반성과 21세기 초의 과제”, 「도덕윤리과교육 12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 조난심(2000),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발전 방향”, 「도덕윤리과교육」 제12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 조대현(2000),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차미령(1997), “초등학교 도덕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차우규(1997), “초·중학교 학생들의 도덕 의식 및 도덕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추병완((1998), “미국의 인격 교육”, 「세계의 윤리·도덕 교육」,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허경철 외(1994), “인간성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모형 개발 및 평가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기타 문헌>

한국일보, “초등학교 학생의 지적·정의적 발달 수준” : 2002년 2월 6일.



<Summary>

A Study on a Working Plan of the Moral Subject  
in the Elementary Curriculums  
-Focusing on the 7th Curriculums-

Ko, Moon-Bong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Bang-Ju

The education is to stress not only on developing the knowledge and the ability of students but also on the moral education for men in the age of knowledge-information of 21st Century.

Through the moral education, the next generation can comprehend and internalize the values and principles needed in personal or social lives, develop his moral virtue and personality by practicing them. We should cultivate men of moral and of conscience of living together with others, in the process of his trying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and its welfare, and to fulfill his responsibility.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ality and the problems of the Proper Life in the 7th Curriculums, and to show a concrete working plan in schoo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ral education is taught through the Proper Life and the Morals in school. By this phrase, we can see that the key of the moral education in school is the two subjects, the Proper Life and the Morals. To operate it well and to obtain anticipated results, above all, the substantial education of the Proper Life and the Morals is most needed.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2.

Second, though teachers educate students moral education mainly through the Proper Life and the Morals, they should effectuate even through other classes. Pan-Class Learning have to be closed connected with the main values and virtue of the moral education. Discussion activities like announcement of own's thought, and experience activities like observation, investigation, collection, work and field trip should be fully performed.

Third, if we admit that the final goal of the moral education is the moral practice, the experience learning must be done in all school activities, in subject-class, dispositive activities, special activities and so on. Especially, to improve the efficacy of the moral education, the dispositive activities should be made up of practice, positive participation, and experience-orient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Forth, special activities can help students shape their proper character, maintaining balance with autonomous activities, application activities, enlightenment activities, public services and events. Rather than the lectures of teacher, the Moral Room or the Manners Room, for example, is more needed, and effected in the moral education class in school.

Finally, teachers have to run their class as a moral community, educational activities democratically and morally, and make the air of class the same way, that is to say, moral living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all the school activities should be done organically, we have to try to make the whole school atmosphere be more adaptable to the moral education. And, the values and the virtue through the moral education should be coordinated, integrated, extended with school, family and community.